

德興里壁畫古墳 研究

중국의 지역적 영향관계와 도상의 연원을 중심으로

박 현 주*

- I. 머리말
- II. 德興里古墳의 벽화 내용
- III. 덕흥리고분의 中國의 특징
- IV. 덕흥리고분의 高句麗의 특징
- V. 맺음말

I. 머리말

德興里壁畫古墳(이하 덕흥리고분)은¹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人物風俗系에 속하는 초기고분으로 墓誌銘을 통해 408년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² 기존에 덕흥리고분에 대한 연구

*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¹ 덕흥리고분은 1976년 12월에 발견되어 발굴·조사되었고, 1978년 일본에서 묘지명과 벽화의 일부 사진이 소개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高松塚美人のご」, 『アサヒグラフ』(1978년 12월 8일자); 久保田博二, 「ナゾの4,5世紀を探る德興里古墳壁畫」, 『毎日グラフ』(1978년 12월 31일자); 上原和, 「新發見の德興里壁畫古墳」, 『毎日グラフ』(1978년 12월 31일자); 同著, 「德興里古墳壁畫の墓誌銘と壁畫」, 『藝術新潮』 350(1979). 국내에서는 金元龍에 의해 그 내용이 알려졌다. 金元龍, 「高句麗壁畫古墳의 新資料」, 『歷史學報』 81(1979), pp.153-172(『韓國美術史研究』[一志社, 1987]에 재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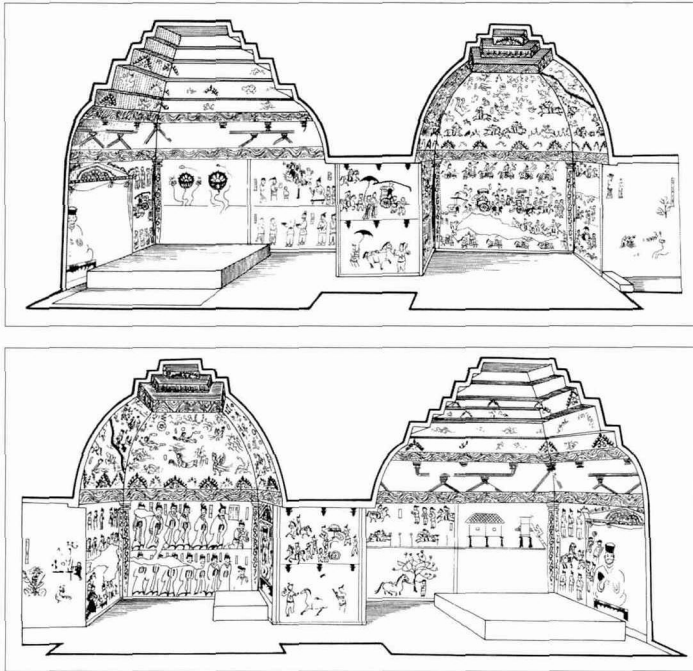
는 역사학계에서 전실 북벽에 있는 묘지명과 벽화의 도상들 옆에 있는 墨書를 통해 고구려의 영토범위와 정치구조, 墓主 鎮의 국적문제를 규명하는 데 집중해 왔고 미술사 연구로는 벽화 중의 일부 제재를 선택해서 의미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덕흥리고분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안악3호분보다는 제재의 수용에서 고구려화되는 초기고분으로 본다.

묘를 장식하는 것은 중국 전통으로, 당시 고구려에서는 외래 문화였던 장식묘를 도입하면서 필연적으로 고분조성의 방법, 도상의 선택에서 중국에 淵源해야만 했다. 고대 중국에서는 前漢(B.C. 206년-A.D. 25년) 중기에 畫像石墓, 畫像塼墓, 壁畫墓 등의 여러 형식의 장식묘가 출현한 이후 元代에 이르기까지 14-15세기 동안 유행했다. 묘실장식이 가장 번성했던 兩漢(B.C. 206년-A.D. 220년) 시대에는 화상석묘가 장식묘의 주요 형식이었다.³ 한대 화상석묘에서 성립된 장식묘의 전통은 魏·晉시대에 벽화묘 형식으로 계승되어 명맥을 유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성과에 기반해서 기년이 확실한 덕흥리고분의 중심제재들을 중국의 화상석묘, 화상전묘, 고분벽화의 도상들 가운데서 찾아보고자 한다. 중국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어느 시대·지역적 요소를 도입했는지 살펴봄으로써, 덕흥리고분의 중국적 요소의 수용 형태와 고구려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² 묘지명을 통해 덕흥리고분을 廣開土王代인 永樂 18년(408년) 12월 25일(양력 409년 1월 26일)에 완성하고 영락 19년(409년) 2월 2일(양력 409년 3월 4일)에 폐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은 “□□郡 信都縣 都鄉(中)갈리 사람이며 釋迦文佛의 弟子인 □□氏 鎮은 역임한 관직이 建威將軍·國小大兄·左將軍·龍驤將軍·遼東太守·使持節·東夷校尉·幽州刺史이었다. 鎮은 77세로 죽어, 永樂 18년 戊申年 초하루가 辛酉日인 12월 25일 乙酉日에 (무덤을) 완성해서 靈柩를 옮겼다. 周共이 땅을 相하고 孔子가 날을 擇했으며 武王이 시간을 선택했다. 날짜와 시간을 택한 것이 한결같이 좋으므로 장례 후 富는 七世에 미쳐 자손은 번창하고 관직도 날마다 올라 位는 侯王에 이르도록 하라. 무덤을 만드는데 만 명의 공력이 들었고, 날마다 소와 양을 잡아서 술과 고기, 쌀을 먹지 못할 정도이다. 아침 식사로 먹을 간장을 한 창고 분이나 보관해 두었다.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며, 이 무덤을 방문하는 자가 끊어지지 않기를(□□郡信都(縣)都鄉(中)甘里/釋迦文佛弟子□□氏鎮仕/位建威將軍(國)小大兄左將軍/龍驤將軍遼東太守使持/節東(夷)校尉幽州刺史鎮/年七十七壽[焉]永樂十八年/太歲在戊申十二月辛酉朔廿五日/乙酉成遷移玉柩周公相地/公子擇日武王[選]時歲使一/良葬送之[後]富及七世子孫/番昌仕宦日遷位至侯王/造藏萬功日煞牛羊酒肉米粢/不可盡[掃]旦食[鼓]食一椀記/[之][後]世萬奇無疆”

³ 화상석은 전한 후기부터 후한 말까지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형성된 厚葬풍습에 수반하여 유행한 것으로, 200여기가 중국 전역에서 발견, 발굴되었다. 분포 범위는 밀집정도에 따라 5개의 주요 분포구로 나눌 수 있다. ① 山東省 전체, 江蘇省의 중북부, 安徽省의 북부, 河南省의 동부 河北省의 동남부 지역이다. 5개의 분포구 가운데 이곳이 가장 넓으면서도 밀집된 구역으로, 현재 발견된 중국 전역의 한대 화상석 총 수의 60% 이상이 이 지역에 있다. ② 南洋市를 중심으로 한 하남성 서남부와 湖北省 북부지구로 한대 화상석의 발상지라 할 수 있다. ③ 陝西城 북부와 山西省 서부지구 ④ 四川省과 雲南省의 북부지구 ⑤ 하남성 洛陽市 주변 지구로 나눌 수 있다. 信立祥, 『中國漢代畫像石の研究』(同成社, 1996), pp.5-8.



도 1 德興里古墳 墓室 透視圖

II. 德興里古墳의 벽화 내용

덕흥리고분은 平安南道 南浦市 江西구역 德興리에 자리잡고 있다. 무학산 서쪽의 옥녀봉 남단에 있으며 10km 이내에 藥水里, 水山里, 保山里 등 10여 기의 다른 고분이 분포되어 있고, 안악3호분은 남포의 아래쪽인 안악군에 위치하고 있다.

묘실은 반지하에 쌓았고 南向의 石室封土壁畫墳으로 羨道, 前室, 通路, 後室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와 통로의 천정을 제외하고 묘실 벽면과 천정에는 전면에 걸쳐 벽화가 그려져 있다^{도1}. 벽화는 박락이 된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명히 잘 남아 있고 정밀한 구상을 기초로 해 구획별로 배치했음을 알 수 있다. 고분은 生者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墓主人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고분에 그린 벽화의 구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묘실문을 통해 들어가는 生者들의 관점이 아닌 덕흥리고분의 주인인 진이 안치되었고, 그의 초상이 있는 후실에서 묘문을 보는 각도에서 벽화를 관찰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전실과 후실의 벽면 상부에는 가로로 들보(梁)를 돌려서 크게 벽면과 천정으로 나누었고 어떤 벽면은 전체를 한 개의 화면으로 이용하고 또 어떤 곳은 상하 2단으로 나누어

활용했다.⁴ 후실 서벽과 동벽 하단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은 묘주의 관에 가려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이해된다. 덕흥리고분의 벽화는 초기 고구려고분 가운데 가장 다양한 제재를 그렸다.

후실 벽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분의 가장 안쪽에 해당하는 북벽에 양 옆으로 남녀시종을 거느리고 화려한 帳房 안에 앉아 있는 鑣의 초상이 있어 후실 벽화의 중심을 이룬다. 서벽은 좌우로 양분하고 다시 상하 2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오른쪽 상단에는 二棟의 건물이 있고, 하단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며, 왼쪽의 상단에는 말을 타고 활쏘기 경기하는 馬射戲 장면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한 그루의 나무를 중심으로 한 필의 말과 진의 초상을 향해 서 있는 한 명의 마부가 그려져 있다. 남벽은 통로 입구 때문에 동·서측으로 양분되는데, 동측 윗부분에는 蓮花를 한 송이 그렸고, 아랫부분에는 그림이 없다. 그리고 서측은 상하 2단으로 구분하여 상단에는 마굿간과 세 송이로 이루어진 연화를, 하단에는 외양간과 연화를 그렸다. 동벽은 좌우로 양분하고 다시 상하 2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왼쪽의 상단에는 蓮池에서 피어나는 대형의 연화를 두 송이 그렸고, 하단에는 그림이 없다. 오른쪽은 상하 2단에 모두 七寶行事圖를 그렸는데, 하단의 그릇을 든 2명의 남자와 다른 2명의 남자가 진의 초상을 향하고 있다.

통로의 서벽과 동벽 상단에는 남자와 여자 주인공의 것으로 보이는 가마와 우교차를 시종들이 끌고 전실 쪽을 향하고 있다. 하단에는 마부가 빈 말을 앞쪽에서 이끌고 뒤쪽에 率을 든 시종이 있는데 동·서벽이 동일하게 그려졌다.

전실 벽면의 벽화를 보면 북벽은 후실로 이어지는 통로 때문에 동·서측으로 나뉘는데, 동측에는 行列의 뒷부분이, 서측에는 政事를 돌보고 있는 묘주 진의 坐像이 그려져 있다. 서벽은 벽면을 상하 2단으로 구분하여 상단에 6명, 하단에 7명의 太守를 그리고, 각각 앞에 1명씩 안내자를 그렸다. 각 인물마다 어느 군의 태수로 있는가를 문자로 기록했다. 남벽은 연도의 입구 때문에 동·서측으로 나뉘는데, 동측에는 行렬의 앞부분이, 서측은 벽면을 상하 2단으로 구분하여 진이 이끄는 幕府官吏들이 사무를 보는 장면을 그렸다. 동벽에는 行렬도의 중간부분이 그려져 있는데, 중앙의 중심대열, 좌우의 文官·武官의 騎馬隊列과 양옆의 鎧馬武士 대열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전실 벽화의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行렬의 선두가 연도 입구를 향하고 있는 行렬도로서 남벽 동측, 동벽, 북벽 동측으로 이어져 있

⁴ 덕흥리고분의 벽화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설명은 社會科學院, 『德興里高句麗壁畫古墳』(講談社, 1986)에 근거했다.

다. 다른 하나는 묘주 진이 幽州刺史로서 政事를 돌보는 장면으로서 북벽 서측의 진의 초상, 서벽의 진의 좌상을 향해 서 있는 13군태수도, 남벽 서측의 막부관리도로 구성된다.

전실 천정은 네 벽을 一周하는 梁의 윗부분부터 천정의 개석까지 해당하는데, 먼저 천정의 궁륭부에는 梁 위에 화염문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였고, 그 위로 해·달 등의 천체도, 수렵도, 견우와 직녀, 선인·옥녀와 괴금·괴수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궁륭부의 도상들 사이에는 두 종의 雲文이 배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앞이 뾰족하고 양 옆에는 흑 모양이 두 개씩 나온 모습이고 그 앞뒤로 몇 가닥의 선을 그려 도안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을 메우고 뭉게뭉게 용솟음치는 怪雲文이다.

북쪽 천정에는 묘지명을 비롯해서 山岳圖 일부, 북두칠성을 포함한 별 15개, 地軸, 天馬, 天雀, 博位, 賀鳥, 辟毒, 喙遠, 霽陽, 설명문이 없는 짐승이 있고, 서쪽 천정에는 月, 19개의 별, 千秋, 萬歲, 玉女 2인, 仙人 1인이 있다. 남쪽 천정에는 牽牛, 織女, 은하수, 富貴, 吉利, 星星, 선인 1인, 18개의 별들, 산악과 함께 있는 狩獵圖 일부가 있다. 동쪽 천정에는 日, 8개의 별, 飛魚, 陽光, 靑陽, 수렵도의 중심부분이 있다.

전실 천정의 윗부분은 궁륭부가 끝나고 수직으로 되는 측면에 상하 2개의 평행선을 긋고, 그 사이에 거치모양의 사선으로 삼각형을 만들어 구간마다 3瓣의 꽃무늬를 그렸다. 문양은 갈색으로 선을 그리고 가운데는 황색을 칠했다. 평행고임 1단 아랫면에는 문양이 없고, 측면에는 연꽃잎 무늬가 사방에 연이어 있다. 평행고임 2단의 아랫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4행씩 갈색선을 긋고 그 위에 담녹색의 사선을 그렸다. 측면에는 화염문을 1개씩 배치했다. 천정의 개석에는 꽃잎이 8개인 蓮花文이 내려다보는 형태로 있다. 꽃잎은 둥글고 끝이 뾰족하다. 연도 입구의 벽화는 박락이 심하여 분명하지 않으나 동벽에는 입구를 향하여 2~3명의 인물이 견고 있음이 보이고 그 앞에는 창을 쥐고 혀를 내밀고 있는 怪禽이 있다. 서벽의 북측에는 童子를 데리고 있는 인물이 있고 남측에는 역시 괴금이 2개의 창을 쥐고 서 있다.

III. 덕흥리고분의 中國의 특징

後漢(25년-220년) 이후 중원지역의 전란으로 인해 명맥이 끊겼던 고분조성은 4, 5세기 魏·晉시대에 다시 조성되기 시작하는데 변방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서북지역과 요양지역, 고구려에서 집중적으로 조성된다.⁵ 덕흥리고분은 위·진시대 주요 고분조성지역인 요양과 서북지역적 개별 요소를 선택하여 조성하고 있다.

1. 魏·晉시대 서북지역의 벽화묘 요소⁶

요양지역은 한대부터 조성된 고분은 103기 정도이고 이 가운데 위·진시대의 것이 30기 정도 발굴되었다. 서북지역에서는 한대를 포함해서 1,000여 기가량 보고 되는데 발굴된 것은 14기 정도이다.⁷ 고구려의 생활풍속계에 속하는 초기 고분들은 45기 정도로 평양지역이 가장 많은 28기, 안악 6기, 집안이 11기 발굴되었다.⁸

위·진시대 요양지역은 塋築墳이 다수를 차지하던 다른 중국지역과는 다르게 돌을 재료로 축조한 석실봉토벽화분이 조성되는 지역적 특징이 있다. 回廊을 갖춘 棺室 竝列배치가 일반적인 고분 형식으로, 이러한 구조는 중국 후한대 화상석묘의 구조에서 유래한 것이다.⁹ 덕흥리고분과 50년의 시차가 있는 안악 3호분은 석판을 竝列로 나열한 多室墓 구조로 요양지역 묘실구조 형식으로 조성하는 초기 고구려고분의 예이다.

반면 덕흥리고분을 포함한 고구려 초기 벽화분의 다수는 前, 後室 縱列배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위·진시대 벽화조성이 활발했던 또 다른 지역인 서북지역의 甘肅省일대에서 조성되었다^{도2}. 묘실구조에서 종렬배치는 중국 후한대 벽화분에서부터 시작되지만, 4세기에 조성된 고분 중에서는 감숙성과 고구려지역에서만 관찰된다.¹⁰ 이것은 초기 고구려 벽화군들의 특징으로 고구려 고분벽화들이 당시 요양지역과는 다른 묘실 구조를 선택해서 조성하고 있다. 특히 덕흥리고분은 서북지역의 酒泉 丁家閘5號墳(十六國時代, 386-441, 이하 정가갑5호분)과 가장 유사한 묘실구조와 더불어 여러 가지 벽화제재에서 유사성을 보여 주목

5 위·진남북조 시기 중국 벽화군은 네 개의 지역으로 나눈다. ① 중원지구는 淮河이북 燕山이남의 황하 중하류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주로 北朝 벽화묘가 존재한다. ② 동북지구는 遼河 동쪽의 지역으로 魏晉, 三燕과 고구려 벽화묘가 있다. ③ 서북지구는 河西에서 新疆 吐魯番 일대로 위진과 五涼시기 벽화군이 자리잡고 있다. ④ 남방지구(南京地區)는 淮河이남의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고 東晉 南朝墓 계통이다. 鄭岩, 『魏晉南北朝壁畫墓研究』(中國社會科學院, 2001), pp.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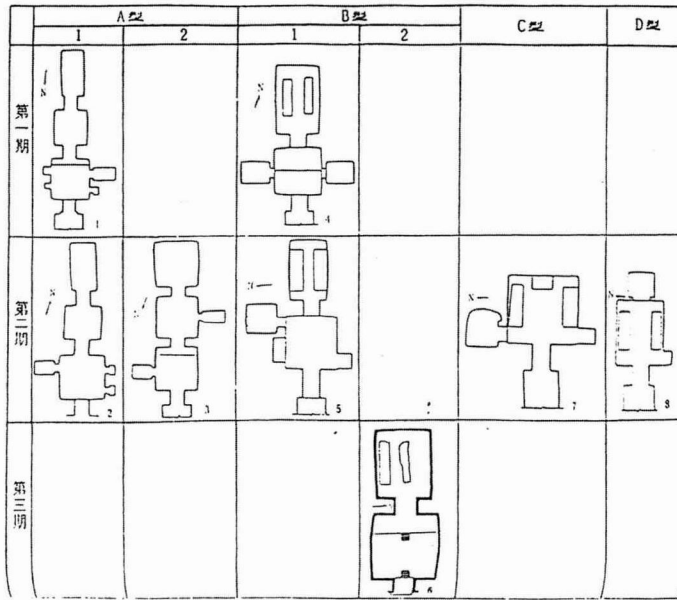
6 요녕성 요양의 고분군은 1950년대에 알려진 것에 비해 감숙성의 벽화묘는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발굴 보고되기 시작했고 가옥관시 신성촌의 화상전묘와 주천시 사이에는 동서 약 10km, 남북 15km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다. 河野道房, 「壁畫」, 『世界美術大展集(第3卷)－三國·南北朝－』(小學館, 2000), p.111.

7 信立祥, 앞의 책, p.8.

8 全虎兌,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내세관 표현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p.7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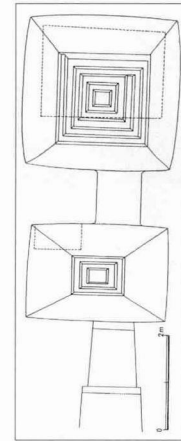
9 강현숙, 『고구려와 비교해본 중국 한, 위·진의 벽화분』(지식산업사, 2005), pp.210-212.

10 묘실구조에서 위·진시대 감숙성과 고구려 고분군의 구조의 유사성은 덕흥리고분과 정가갑5호묘, 전실과 후실 사이에 통로 기둥을 세운 감숙성의 무위 남탄 1호분과 고구려의 팔청리 벽화분의 구조적 유사성으로부터 확인된다. 강현숙, 위의 책, pp.369-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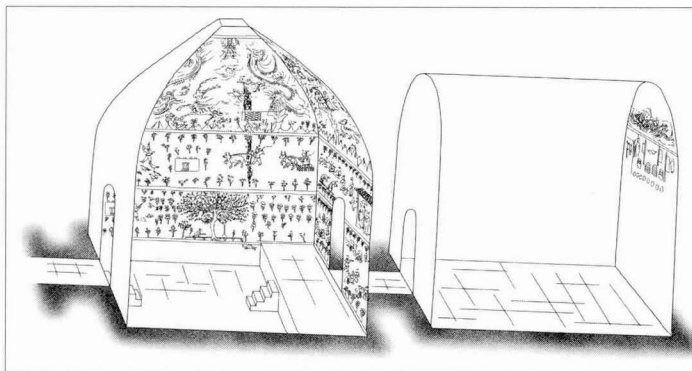


도 2 西北地域 壁畫墓 類型과 時期別 分類, 魏晉時代

1. 嘉峪關新城3號墓 2. 嘉峪關新城6號墓 3. 王靄墓 4. 殷清墓
5. 敦煌佛爺墓灣133號墓 6. 酒泉丁家閘5號墓 7. 敦煌佛爺墓灣37號墓
8. 敦煌佛爺墓灣118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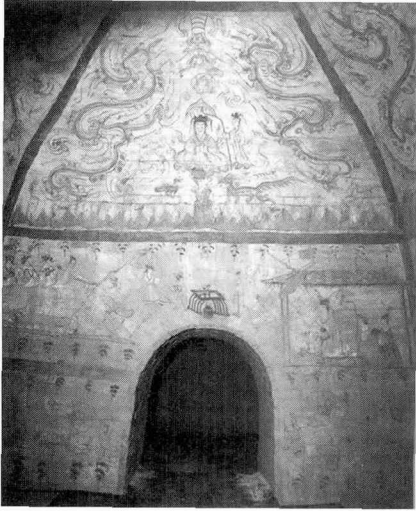
도 2-1 德興里古墳 실측도



도 3 酒泉丁家閘 5號墳 透視圖, 386-441년

된다도3.¹¹

¹¹ 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酒泉十六國墓壁畫』(文物出版社, 1989); 甘肅省博物館, 「酒泉, 嘉峪關晉墓的發掘」, 『文物』(1979年 6期), pp.1-17; 張朋川, 「酒泉丁家閘古墓壁畫藝術」, 『文物』(1979年 6期), pp.18-21 참조.



도 4 西王母, 386-441년, 前室 西壁,
丁家閣5號墓

정가갑 5호분은 전후 二室을 갖춘 간소한 구조의 塼築墓로, 白土를 바르고 그 위에 벽화를 그렸는데 후실 안쪽벽에 雲氣와 化粧용기의 그림이 간략히 그려져 있다. 전실의 천정은 天界를 표현하는데 꼭대기에는 위쪽에서 거꾸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린 용의 머리가 있고, 그 아래에는 日像이 있으며 벽면 중심에 東王公을 배치했다. 서벽에는 동벽과 같은 구도를 하고 있는데 日 대신에 月, 동왕공 대신에 西王母가 있다^{도4}. 벽면에는 묘주의 생전 家居宴樂의 장면이 있고 맨 아랫단에 지하를 상징하는 거북이가 있는데 현대인들의 네 개의 층차를 이룬 우주인식의 구조를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있다.¹²

개별제재에서 두 고분은 매우 친연성을 보이는데, 전실 천정의 옷자락을 통해 飛行하는 仙人像^{도5,6}, 북벽 천정의 天馬^{도7,8} 특히 천정과 벽면을 가르는 산악을 경계로 천상세계와 현실세계로 나누고 있는 것은^{도9,10} 위·진시



도 5 羽人圖, 381-441년, 前室 남쪽 天井,
酒泉丁家閣5號墓



도 6 仙人之幡, 408년, 前室 서쪽 天井, 德興里古墳

¹² 현대인들은 우주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인식했다. 최고 상층의 세계는 上帝와 여러 신들이 거주하는 천상세계, 두 번째는 서왕모가 거주하는 곤륜산으로 대표되는 仙人世界, 세 번째는 현실의 인간세계, 네 번째는 지하의 귀신과 혼령의 세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信立祥, 앞의 책, p.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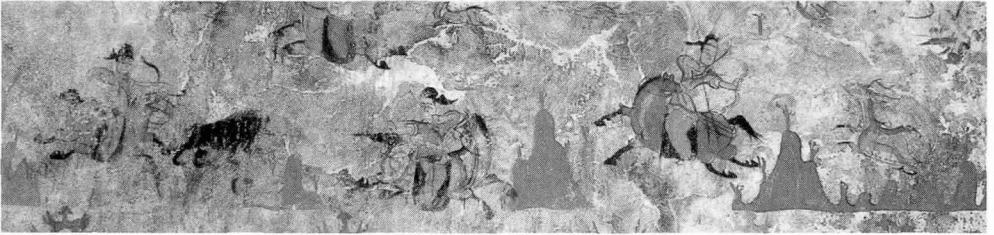
도 7 神馬, 386-441년, 前室 북쪽天井, 酒泉丁家閘5號墓



도 8 天馬, 408년, 前室 북쪽天井, 德興里古墳



도 9 山岳圖, 386-441년, 酒泉丁家閘5號墓



도 10 狩獵圖, 408년, 前室 동쪽天井, 德興里古墳

대 벽화 중 덕흥리고분과 정가갑5호분에서만 볼 수 있다.

지역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사성은 4-5세기대에 감숙성 일대가 五凉과 前秦 (351-394년)의 세력권 아래에 있었고 특히 전진이 고구려에 불교를 전해준 왕조였던 점을 고려할 때 두 지역 간의 교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¹³ 그리고 덕흥리고분에 그려진 인물들의 복장 가운데 동쪽 통로의 시녀가 입은 색동치마와 玉女의 치마는 발목까지 오는 다소 짧

은 치마로 신강과 감숙성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¹⁴

그러나 벽화 제재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덕흥리는 제재 면에서 요양지역에서 주류를 이룬 묘주부부상과 출행도가 중심인 반면 서북지역에서 일상생활 속의 생산과 소비의 부분과 승선이라는 두 개의 큰 부류가 그려지고 있었다.¹⁵

2. 위 · 진시대 遼陽지역 벽화묘 요소

분묘장식에서 墓主像이 중심 제재로 등장하게 된 것은 후한대로 전한에 성행했던 日月像이나 四神, 昇天, 祇禱 등의 비중이 차츰 줄어들면서 묘주상과 더불어 門卒, 관리도(屬吏), 車馬行列, 家居飲燕 등이 주요 장식소재로 출현하면서부터이다.¹⁶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배경으로는 漢武帝(B.C. 140년-B.C. 87년) 때부터 유교를 국가 통치이념으로 채택하면서 부모에 대한 厚葬을 가장 중요한 '孝行'의 실천으로 여겨, 분묘 조성에 열성을 기울이게 되면서이다.

위 · 진시대 요양지역에서는 묘주상이 집중적으로 그려지고 부부합장이 복을 가져 온다는 장송관념으로 인해 묘주의 부인이 함께 표현되는 예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요양지역의 묘주상은 장방이 드리워진 평상 위에 앉아 있는 실내의 부부상으로 출현하며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¹⁷

¹³ 4세기 초 고구려는 중국 요동지방을 사이에 두고 前燕과 전쟁과 우호관계를 반복하면서 세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전연이 370년 전진의 符堅에게 대패해 요동 지역에서 세력을 잃게 되었고 이 결과로 고구려는 전진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부견은 漢나라를 잇는 정통왕조의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주변 지역과 화친정책을 폈다. 372년 고구려에 順道를 보내 佛像과 經文을 전해준 것도 우호정책의 일환이었다. 이후 고구려는 전진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고, 고구려의 문물이 전진으로도 전해졌다. 전진이 감숙성 전역을 세력권 아래 두었던 시기는 376년부터 386년 사이다. 朴漢濟,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一潮閣, 1993), pp.69-100.

¹⁴ 4세기 초와 5세기 말엽 이 지역은 16개의 왕조가 건설되었고, 건국자는 胡族이었지만 漢文化를 용인하고 보화했기에 漢化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방 호족의 고유성을 유지했는데 색동치마, 발목 정도의 치마 길이, 연지의 사용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안악3호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덕흥리고분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金正善, 「高句麗 古墳壁畫 變遷에 관한 新論」, 『文物研究』 제4호(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0), pp.71-19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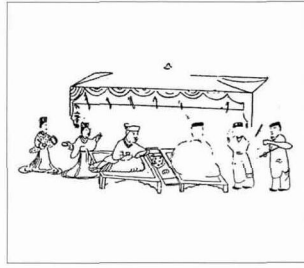
¹⁵ 감숙성의 벽화는 묘주상, 가거연음, 부엌, 농경 등의 생산소비를 제재로 묘주의 사후생활을 위해 묘실을 채우고 있다. 승선의 내용을 대표하는 것은 주천 정가갑5호묘의 천정 부분에 있는 서왕모, 동왕공 등 후한시대 신선사상과 도교적 전통 속에서 유행하던 제재들이다. 그러나 한대 주요 제재였던 유가사상의 영향으로 그린 三皇五帝, 忠臣, 孝子, 烈女 등의 고사 제재를 이 지역에서는 볼 수 없다. 거마출행도 역시 매우 희귀하고 간소화된다. 鄭岩, 앞의 책, pp.52-53.

¹⁶ 湯池, 「漢魏南北朝의 墓室壁畫」, 『中國美術全集』繪畫編 12(文物出版社, 1989),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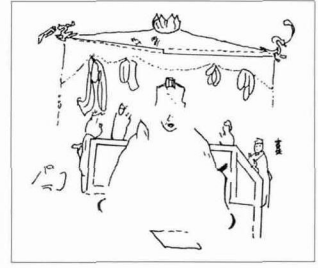
¹⁷ 東潮, 『高句麗考古學研究』(吉川弘文館, 1997), p.313.



도 11 墓主夫婦像, 魏晉時代,
遼陽 三道塚第四現場墓



도 12 墓主夫婦像, 魏晉時代,
遼陽 棒台子二號墓



도 13 墓主像, 魏晉時代,
遼陽 上王家村墓

I형식은 夫婦對坐像으로 묘주와 부인이 모두 측면으로 표현되며 도11, II형식은 부부가 병렬로 앉은 側視坐像이다 도12.¹⁸ III형식은 부부단독 정시좌상으로 上王家村墓가 있다 도13.¹⁹ 고분구조로 볼 때 I형식과 II형식이 앞서고 III형식은 가장 늦은 시기에 축조된 벽화로 확인된다. 상왕가촌묘에서부터 요동지역의 묘주상의 자세와 역할이 변하고 있고 고구려지역에서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이 뒤를 잇고 있다.²⁰

I·II형식의 묘주부부는 시종들의 음식물 진상을 받는 모습으로 일상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며 묘주에게는 남자 시종이, 부인에게는 시녀가 시종을 든다. 그러나 상왕가촌에서 보이는 묘주상의 대형화와 더불어 주변 從者의 동작이나 행위에도 차이가 있는데, 음식공양보다는 공적인 활동을 하는 묘주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홀을 든 시종에 '書佐'라는 목서가 있는데 이는 '書記'로 간주되고 묘주의 공적인 업무를 기록하는 형상이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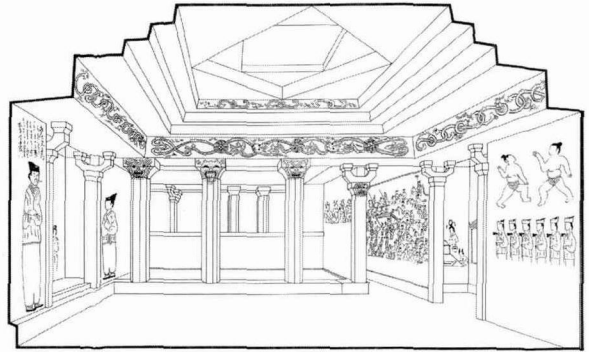
고구려 지역의 안악3호분은 전실 서쪽 측실에 묘주와 부인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도14 동쪽 측실에는 부엌, 푸줏간, 우물, 車庫가 그려져 있으며 회랑 쪽에 행렬도와 奏樂의 장면

¹⁸ I형식은 三道塚 2·4號墓, 棒台子墓, 迎水寺墓, 南雪梅村 1號墓가 해당하고 II형식은 棒台子 2호묘가 해당한다. 東 潮, 앞의 책, pp.300-302.

¹⁹ 李慶發, 「遼陽上王家村晉代壁畫墓清理簡報」, 『文物』(1959年 7期), pp.60-62 참조.

²⁰ 묘주상은 평양·안악지역에서 주로 보이고 12기 정도 확인된다. 집안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지 않으며 5기 정도 그려진다. 생활풍속계 고분의 다른 제재인 사냥, 무용, 풍속, 생활용품은 평양과 집안이 비슷한 비율로 분포한다. 초기 고분벽화의 중심제재인 묘주상에 대해서는 복식에 의거한 인물화의 유형을 살펴본 것과 묘주부와 인물들의 조형적 특징을 연구한 논문이 있다. 崔淳雨, 「高句麗 古墳壁畫 人物圖의 類型」, 『考古美術』 150(1981. 6), pp.166-179; 安輝濬, 「韓國 古代繪畫의 特性과 意義-三國時代 人物畫를 中心으로-(上·下)」, 『美術資料』 41(1988. 6), pp.32-56; 42(1988. 12), pp.24-55.

²¹ 상왕가촌 묘주표현은 후한대 하복성에 있는 녹가장 다실묘(176년)의 묘주표현의 전통과 연결선상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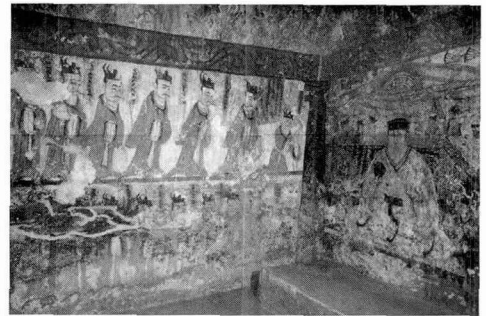


도 15 前室 透視圖, 357년, 安岳3號墳

도 14 墓主夫婦像, 357년, 前室 서쪽 측실, 安岳3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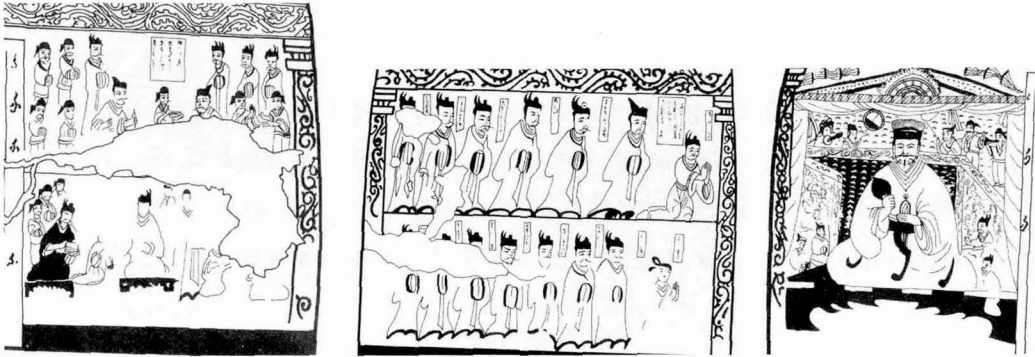
도 16 墓主像, 357년, 前室 서쪽 측실, 安岳3號墳



도 17 墓主像과 13군 배례도, 408년, 德興里古墳

이 있다. 서쪽의 묘주가 동쪽에 있는 제재들을 바라보는 구성을 하고 있다도15. 묘주상은 큰 규모와 완전 정면의 자세를 띠고 있고 상왕가촌묘의 묘주표현의 계보를 따르고 있다. 좌우에 記室, 小史, 省事, 門下拜 직함이 있는 인물들이 보좌하고 요양지역의 부부병렬의 측시좌상을 벽면을 다르게 해서 그리고 있다도16.

덕흥리고분의 묘주 진의 초상화는 전실의 북벽과 후실의 북벽 두 군데에 그려져 있는데 전실 북벽의 것은 서벽에 그려진 13명 태수들의 배례를 받는 모습과 남벽의 관리들에게 관직을 수여하는 장면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한다도17. 13군의 태수가 상·하 2단으로 모두 진을 향하여 상반신을 약간 숙여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진은 대신급이 쓰는 靑羅冠을 쓰고, 오른손에 부채 모양의 지물을 들고 있다. 묘주 주변에 있는 좌우 인물들은 왼손에 목



도 18 墓主像과 官吏圖, 408년, 前室 南·西·北壁, 德興里古墳

책을 펼치고 오른손으로 필을 쥐고 무엇인가 기록하는 모습이다. 묘주상 뒤편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안악3호분에서 묘주가 바라보는 동쪽에 그려진 제재로 덕흥리에서는 묘주의 주위로 배치되었다.²²

덕흥리 전실의 묘주상은 요양지역 상왕가촌에서 안악3호분으로 이어진 공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완전 정면향의 묘주상을 주요 제재로 그리고 있다. 안악3호분이 내세에서의 평안한 삶을 염원하는 주방이나 주악의 장면을 바라보는 형상이라면, 덕흥리의 묘주는 서벽의 13태수도와 남벽의 관직수여의 장면과 연결된다. 이러한 구성은 생전의 관리로서 묘주 진의 위세와 역할을 어느 고분보다도 극대화하는 유교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다^{도18}.

그리고 덕흥리고분은 전·후 묘실 북벽에 묘주상을 그리고 있는데, 전한시대 '坐西朝東' 배치²³ 후한대에 와서 북쪽을 조상신이 거주하는 중요한 장소로 여겨 '坐北朝南' 배치로 바뀌게 된다.²⁴ 이는 중국 都城制에서 전한 洛陽城의 건축에서 '서쪽에 앉아 동쪽을 바라

²² 네 명이 나란히 앉아 연주하는 奏樂像은 2세기의 산둥성 沂南 畫像石墓와 3세기 요녕성 捧台子墓 벽화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안악3호분에서 묘주가 바라보는 동벽에 네 명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도상은 주천 정가갑5호묘 벽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안악3호분과 관련성이 언급되어 왔다. 町田 章, 『古代東アジアの裝飾墓』(同朋社, 1986), p.190.

²³ '坐西朝東'은 宮中の 西南쪽을 尊長이 거주하는 장소로 보고 祖上神이나 집이 安坐하는 장소로 여겼는데 묘실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상신이 머무르는 장소로 보았기 때문이다. 楊 寬, 『中國都城의 起源と發展』(學生社, 1987) 참조.

²⁴ 묘주도상의 위치를 분류해 보면 ① 측실 서벽에 그려진 것(안악3호분, 태성리1호분, 감신총) ② 전실북벽과 후실 북벽에 그린 것(덕흥리고분, 약수리고분) ③ 후실 북벽에 그린 것(통구 12호분 남북묘, 복사리고분, 팔청리고분) ④ 묘주상과 현무를 북벽에 그린 것(대안리1호분, 쌍영총, 사신총)이 있다. 東 潮, 앞의 책, pp.314-317.

보는(坐西朝東) 배치가 궁실과 일반가옥, 묘실배치에도 적용이 되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요동지역 벽화고분들의 묘주상은 90% 이상이 묘실의 서쪽에 그려지고 있는데 '坐西朝東' 형식으로 오른쪽 耳室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도성 배치가 '坐北朝南'으로 바뀐 이후에도 전통을 따르는 보수적 성격이 강한 묘제에서는 위·진대까지 '坐北朝東'이 답습되고 있는 것이다. 덕흥리고분의 조성자들은 당시 요동지역 묘실장식의 중심 제재인 묘주상을 그리고 있고 더불어 묘실 내에서 묘주를 그리는 위치도 새롭게 바꾸어 '坐北朝南'을 선택하고 있다.

3. 漢代 畫像石墓 특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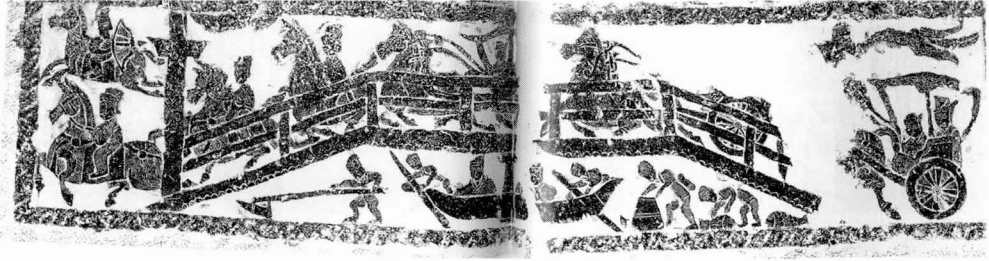
덕흥리의 행렬도는 전실 남벽에서 시작해서 동벽이 중심이 되고 북벽 동쪽 부분이 행렬의 후미를 이루고 있다. 행렬에 기록된 묵서명을 보면 유주가 위치했던 지역의 현령이 앞서 행렬을 선도하고 있다.

후한대 묘주상, 문졸, 관리도와 함께 무덤을 장식하는 거마행렬도는 화상석묘와 벽화묘의 많은 장소에 그려지는데 두 가지의 종류로 그려진다. 우선 묘주의 공적인 지위의 과시와 재현의 의미에서 그린 거마행렬도가 있고, 또 하나의 행렬도는 장례의 과정과 무덤으로 가는 혼의 여행을 묘사한 것이다.²⁵ 前者의 행렬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후한말기 벽화인 내몽고和林格爾縣의 新店子1號墓의 행렬도가 있다.²⁶ 묘주인이 생전에 역임했던 벼슬을 나타냈는데, 이런 목적의 행렬도는 일반적으로 묵서명이 있어 도상의 뜻을 한눈에 명백히 알 수 있다.

後者에 해당하는 거마행렬도의 특징은 들보나 문틀같이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하고 행

²⁵ 우훙은 묘실 내의 車馬出行圖를 그린 위치와 형식에 따라 의미가 다른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한 종류는 생전에 묘주의 경력을 나타내는 행렬도로 보고 또 다른 일련의 행렬은 죽음 이후 不死의 仙界를 향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Wu Hung, "Where Are They Going? Where Did They Come From?—Heares and 'Soul-carriage' in Han Danasty Tomb Art." *Orientalists*(June 1998), p.22.

²⁶ 1972년 발굴된 내몽고 신점자 1호묘는 前·中·後室로 이루어진 多室墓로 후한 말기인 160-170년대에 축조된 것이다. 묘주인은 관직이 使持節護烏丸校尉까지 올랐던 고위관리로 추정한다. 묘실 전체를 묘주의 幕府처럼 조성했으며, 벽화내용 가운데 출행도의 형식으로 생전의 경력을 모두 나타냈다. 먼저 전실 서벽의 우측에는 그의 고향인 定襄郡에서 '孝廉'으로 선발되어 관리가 되었을 때, 서벽 중앙에는 낙양으로 가서 '郎'이라는 관직을 맡았을 때의 행렬 광경이 있다. 남벽 우측에는 그가 처음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맡은 '西河長史'라는 직책명과 행렬이 있고, 남벽 중앙에는 上郡屬國都尉로 승진했을 때, 북벽에는 使持節護烏丸校尉가 되었을 때의 출행도가 있다. 內蒙古自治區博物館文物工作隊, 『和林格爾漢墓壁畫』(文物出版社, 1978), pp.8-24; 『漢唐壁畫』(外文出版社, 1974), p.16.



도 19 車馬出行圖, 151년, 前室 西壁 문돌, 山東 蒼山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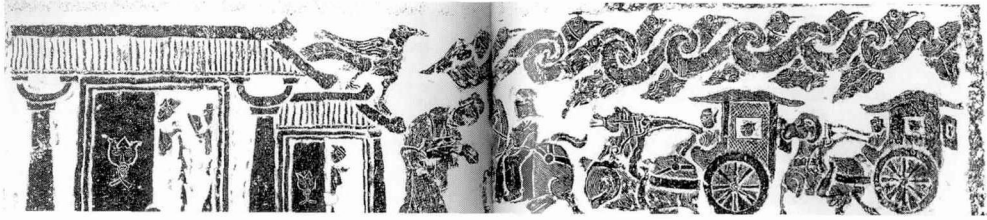
렬의 방향이 묘문을 향하고 있어 마치 어딘가를 향해 묘를 떠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산둥 남서쪽에 위치한 蒼山 元嘉元年(151년)에 지어진 화상석묘의 명문을 통해 알 수 있다.²⁷

전실에 동·서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벽감이 있는데 서벽에 마차가 강을 건너는 모습이 있다.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남성 관리로 구성되어 있고, 死者의 아내는 배를 타고서 강을 건너고 있다¹⁹. 명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衛水 위의 다리에 오르니 마차가 보인다. 앞에는 功曹이 있고 뒤에는 主簿, 亭長, 騎佐가 있고 활을 당기는 야만인 다리 밑으로 물은 흐르고 사람들 무리가 물고기를 잡는다. 시중드는 소년이 배를 짓고(당신의)아내는 강 건너로 간다.²⁸

²⁷ 현재 한화상석의 발견 중 가장 중요한 자료중의 하나인 창산묘는 직접 설계한 건축가(들)가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명문이 발견되었다. 328자에 달하는 명문을 통해 개별 화상석에 묘사된 그림의 의미와 묘실 배치 규칙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전·후실의 구조로 이루어진 묘로 10조각의 화상석이 배치되었는데 설명은 죽은 자의 관이 있는 무덤의 성스러운 부분인 후실에서 시작한다. “元嘉元年[기원후 151년] 8월 24일/ 우리는 이 무덤의 방을 완성하여, 貴親인 당신을 송별하였습니다/ 당신의 혼령이 지각을 갖고 있다면, 당신의 후손들을 어여뵈여겨/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오래 살도록 해 주소서/ 무덤 안에 있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後當, 주작이 노닐고 있는 선인과 만나고 있다...” 당시 묘실건축에서 관이 놓인 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발굴보고서는 山東省博物館·蒼山縣文化館, 「山東蒼山元嘉元年畫象石墓」, 『考古』(1975년 2期), pp.124-134.

²⁸ “上衛橋, 尉車馬, 前者功曹後主簿, 亭長騎佐胡使弩, 下有流水, 多漁者, 從者刺舟渡諸母.” 비문에는 ‘위수가 새겨져 있는데, 이 강은 전환의 수도였던 장안 북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강 건너에는 왕릉들이 있었다. 한의 황제들은 자신들의 무덤과 연결하기 위해 위수 위에 다리를 만들었고, 황제가 죽으면 이 다리를 건너 수백 명의 관리들이 무덤까지 동행했다. 이때부터 위수는 죽음의 상징이 되었고, 무덤장식에서 생사를 가르는 경계를 의미하는 다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Wu Hung, 앞의 논문, p.22.



도 20 車馬出行圖, 151년, 前室 東壁 문들, 山東 蒼山墓

행렬은 동쪽 벽감으로 계속되는데 구성은 앞에서 선도하는 말탄 사람, 뒤에 한 대의 駟車, 양이 끄는 병차로 구성되어 오른쪽에 있는 단층으로 된 건물 쪽으로 나아간다. 양손에 방패를 받들고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굽혀 행렬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마차 위에는 구름 가운데 많은 새의 머리가 보인다도²⁰.

[여성은] 작은 駟車에 앉는다. 마부를 따라서 그들은 都亭에 질주한다. 기다리는 관리는 이들을 알현하고 그리고 그의 출발에 아쉬워하고 [마차행렬] 후미에서 羊車는 상여를 의미한다. 위에는 신성한 새가 구름 사이에서 날아 다닌다.²⁹

이 장면에 대한 글은 행렬이 향하는 곳은 도정이며 마부를 따라 가는 마차가 아내가 탄 병차이고, 후미의 양차는 사자를 태운 영구차임을 밝힌다.³⁰ 도정을 향하는 행렬은 마차의 방향이 묘 안쪽을 향해 있는 것에 반해 묘실 문틀에 있는 선계로 떠나는 행렬의 화상석은 묘문을 향해 전개된다도²¹. 이어진 명문은 이 행렬이 향하는 새로운 세계가 선계임을 밝혀 준다.³¹

정면 강당의 세 기둥 가운데에는 용이 악귀를 쫓아내고 있고 왼쪽에는 玉女와 仙人이 있고 오른쪽 기둥에는… 丞卿이 초대되어 새로 결혼한 신부로부터 술을 대접받고 있다.

²⁹ “使坐上, 小車駟, 驅馳相隨到都亭, 遊徹侯見謝自便, 后有羊車像其椽, 上即聖鳥乘浮云.”

³⁰ 『漢書·史列傳·嚴延年傳』 기록에 따르면 도정은 都邑 가운데 설치된 여관을 뜻하고, 이곳을 지나가는 관리에게 숙식과 마차와 말을 제공했다고 한다. 信立祥, 「漢代畫像中的車馬出行圖考」, 『東南文化』(1999年 1期), pp.49-51.

³¹ “堂三柱, 中□□龍□□非詳, 左有玉女與仙人, 右柱□□, 請丞卿, 新婦主待給水將.”



도 21 車馬出行圖, 151년, 前室 西壁 문돌, 山東 蒼山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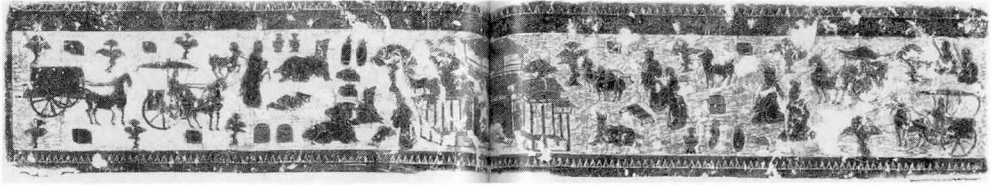
중국 고대인들의 묘는 '영원한 안식처'로 사후에 거주하는 집으로 알려졌는데 창산묘의 여행을 하고 있다는 비문과 묘문을 향한 행렬도의 방향은 사후 안식처를 떠난다는 관념의 모순이 존재한다. 이것은 죽음 이후 혼은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서 지속해서 존재한다는 전통적인 사후관과³² 한대에 성행한 신선이 되어 영원히 불사한다는 관념이 어우러져 묘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³³ 창산묘를 통해 한대 분묘에서 거마출행의 형태로 보이는 묘실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던 행렬도의 방향성은 이후 남북조시대에도 분묘 조성에서 나타난다.³⁴

덕흥리의 행렬은 고분조성에서 묘주의 관이 안치되는 후실이 중심이 되는 고분조성 원칙에서 어긋나게 묘문을 향하고 있고, 이러한 행렬은 한대 화상석묘에서 사후 선계를 갈망

³² 고대 중국인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은 죽음으로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전과는 다른 세계에서 지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인간의 영혼을 상이한 두 요소인 魂과 魄으로 구분하였는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 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육체에서 떠난 영혼의 존재를 믿었던 중국인의 영혼불멸 사상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사후세계는 살아 있을 때를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었다. 그래서 생전 관직 체계가 사후 세계에 그대로 투영되었고, 귀족의 무덤은 사후의 편안한 안식처로서 물건, 음식과 음료를 함께 묻은 것이다. Yu Ying-shih(余英時), "O Soul, Come Back! A Study in the Changing Conceptions of the Soul and After life in Pre-Buddhist China,"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7(1987. 12), p.378; Wu Hung, "Beyond the Great Boundary: Funerary Narrative in Early Chinese Art," John Hay ed., *Boundaries in China*(Reaktion Books, 1994), pp.81-104.

³³ 漢代 이전 불사에 대한 초기 관념은 가능한 한 지상에서 육체의 삶을 연장하여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는 바람이었다. 철학자와 方士, 군주들은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끊임없이 長壽를 추구한 것이다. 현세에서의 不死를 향한 열망과 사후의 안락한 가정에 대한 믿음이 漢代에 함께 공존했고 이러한 모순은 절충되어 죽은 뒤에야 영원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점차 믿게 되었다. '사후세계에서의 不死'라는 관념 형성은 고대 중국인들의 不死 추구의 전환점이 되었다. Wu Hung, 위의 논문(1994), p.86.

³⁴ 北齊의 누예묘의 입구 쪽 21m나 되는 연도 양쪽 벽에 3단으로 구획된 평행면에 가득 벽화가 그려져 있다. 왼쪽 동벽의 騎馬回歸圖는 밖에서 돌아오는 것 같은 모습의 병사들이 말에서 내려 묘실 쪽으로 들어가려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 서벽에는 묘의 출구 쪽을 향해 달려가는 儀衛出行圖가 묘사되었다. 楊泓, 「北朝 晚期 墓室壁畫의 새로운 발견에 대하여」, 『美術史論壇』 5(1997. 10), pp.227-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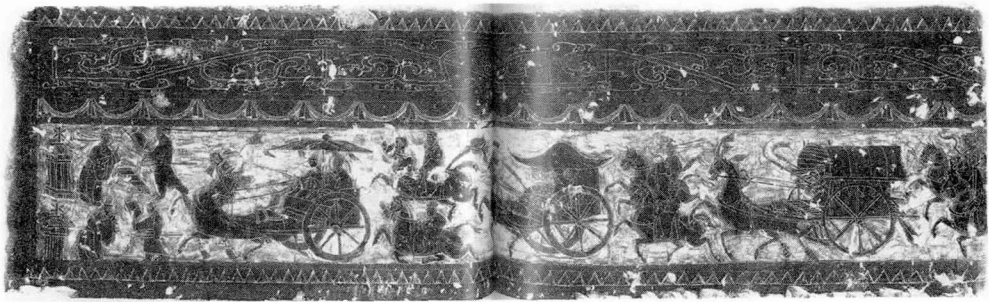
도 22 祠堂行事圖, 後漢晚期, 山東 沂南墓

하는 관념이 담긴 행렬도의 방향성과 같은 것이다. 또한 전실 서벽의 행렬은 사실상 후실 북벽 묘주 진의 초상 옆의 남녀 시종들이 말과 우교차를 준비한 모습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통로의 양쪽 남녀시종들 역시 묘문을 향하고 있고, 이것은 전실 서벽의 행렬도로 연결된다. 덕흥리고분의 조성자들은 한대 화상석묘의 고분조성에서 방향성을 지닌 행렬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이를 덕흥리고분에도 적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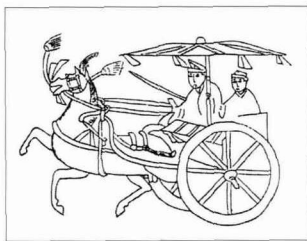
그리고 덕흥리 고분의 전실 행렬도는 방향성뿐만 아니라 漢代 산둥지역에서 유행한 화상석묘에서 일정하게 보이는 세 대의 마차구성과 같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산둥지역 많은 화상석묘에서는 세 가지 다른 형태의 마차로 이루어진 행렬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장례과정에서 쓰이는 ‘魂車’를 포함하고 있다. 고대 중국의 장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儀禮』에 따르면 장례식 전날 사자의 가족은 조상들의 사당에서 의식을 치른다고 한다. 의식 가운데는 두 가지 형태의 마차가 사당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다음날 시신을 운반할 영구차와 死者가 생전에 사용하던 마차가 한 대나 혹은 몇 대가 마당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전에 여행을 하기 전에 마차를 전시하던 관습을 따른 것으로 ‘혼차’로 기록하고 있다.

산동 남동쪽에 위치한 기념묘는 『儀禮』에서 언급한 혼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22, 35}. 전실 남벽에 이층으로 된 가옥 주변에 남자들이 무릎을 꿇거나 엎드린 모습이 있다. 가옥을 향해 경의를 표시하고 있고 땅에는 술단지 곡식자루와 많은 상자들이 놓여 있다. 이런 물건들은 사자의 가족들에게 주는 선물이고 장례 전날 선조의 무덤에서 열리는 애도의 모습이다. 왼쪽에는 아치형 차양이 있는 마차가 있고 오른쪽에 지붕이 있는 가마가 있다. 이 두 대의 마차는 다시 기념묘의 중실에서 볼 수 있는데 행렬의 목적지는 두 명의 관리가 서 있는 기둥이다²³. 각각의 기둥 꼭대기에 크로스 십자가 모양의 막대기가 있는데 이 표식은 무덤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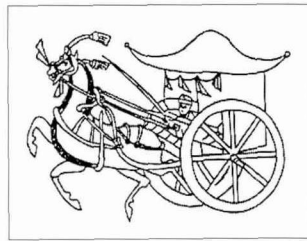
³⁵ 도이 요시코는 기념묘의 행렬도와 안약3호분의 행렬도에 묘주를 그린 것인가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土居淑子, 「漢代畫像と高句麗壁畫の車馬行列圖墓主表現」, 『美術史研究』 6(早稻田大學美術史學會, 1968. 3), pp.3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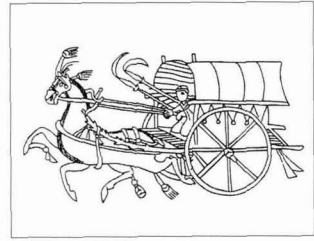
도 23 行列圖, 後漢 晚期, 中室 北壁 橫額, 山東 沂南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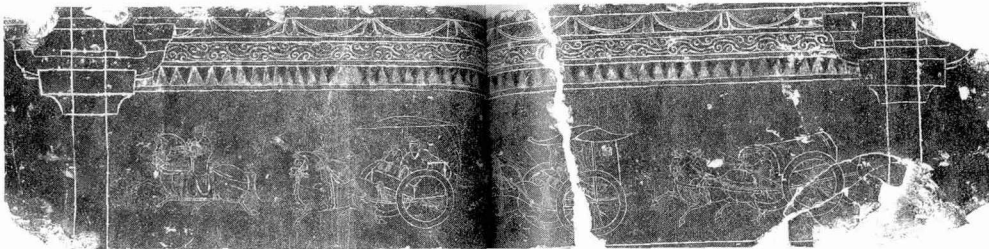
도 24 斧車, 漢代



도 25 軒車, 漢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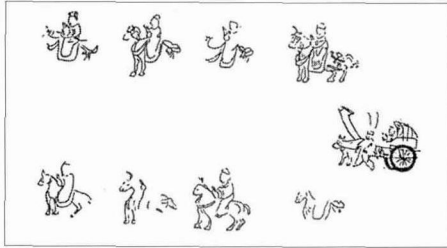


도 26 輻車, 漢代



도 27 車馬行列圖, 後漢, 山東省博物館

징하는 것이다. 수행원을 거느린 세 대의 행렬에서 첫째는 덮개를 덮은 선도하는 마차로 한 대에 남성들이 사용했던 斧車의 형태이다도24. 두 번째는 창문이 없는 경사진 지붕이 있는 軒車로 주로 여성이 이용한 마차이고도25, 세 번째는 길고 좁은 형태의 輻車이다도26. 치차는 짐을 싣는 마차로만 이해했는데 사후의 세계로 인도하는 영구차나 혼차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대의 마차는 실제로 있었던 장례식의 과정을 그리면서 동시에 영원한 안식처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세 대의 마차구성은 산동 화상석묘에서 자주 볼 수 있다도27.



도 28 騎馬行列圖, 魏晉代, 上王家村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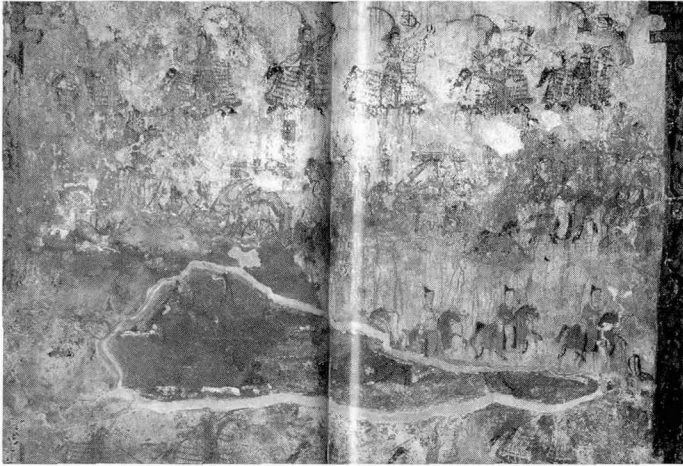
도 29 騎馬行列圖, 357년, 安岳3號墳

위·진시대 요양지역에서 출행도가 그려지는데 후한대 주종을 이루었던 마차를 타고 출타하는 거마출행 대신에 騎馬 출행의 장면으로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³⁶ 그리고 묘주는 마차 대신 소 수레를 타는데 당시 상류층에서 우차를 애용했던 풍속을 반영한 것이다. 요양지역의 기마행렬에서는 우마차가 많이 등장한다. 특히 상왕가촌묘에서는 고구려 행렬도의 특징인 묘주인의 마차를 호위하면서 좌우로 행렬을 이루는 장면이 보이기 시작한다^{도 28}. 이러한 행렬도상은 안악3호분에서 대형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도 29}.³⁷

안악3호분의 웅장한 행렬 장면과 비교될 만한 행렬도가 반세기 뒤의 벽화고분인 덕흥리 전실 동벽에 있다^{도 30}. 전실 동벽 행렬의 중심대열 좌우로 文·武官의 기마대열이, 양쪽 바깥쪽에는 鎧馬무사 대열로 이루어져 있다. 중심대열 선두에는 네 사람의 군사가 오른쪽 어깨에 칼 같은 것을 찼고, 왼손에는 채찍을 쥐었다. 이 뒤를 높은 책을 쓴 사람이 말에 타고 따르는데, 앞에는 鑣□□史司馬이라는 설명문이 있다. 설명문을 보면 진의 막부에서 司馬의 위치에 있던 것으로 이해된다. 뒤에는 화개차가 잇따르는데, 화개차에는 손부채로 보이는 것을 손에 든 한 사람이 앉아 있고, 앞에는 御使導從時라는 묵서명이 있다. 행렬도의 다른

³⁶ 全虎兇, 「요양 위진 고분벽화 연구」, 『美術資料』 62(1999. 7), pp.62-63.

³⁷ 고구려 고분벽화 행렬도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면서 제일 규모가 큰 것이 안악3호분의 것이다. 250명 이상의 인원과 기마인물이 57명에 이른다. 행렬도는 가운데 묘주의 빈 말이 있고 이 뒤에 甞上驢이란 깃발을 앞세우고 묘주가 탄 수레가 있다. 우차를 탄 주인공의 묘주상처럼 귀면의 부채를 들고 있다. 기마상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진 안악3호분의 행렬장면은 묵서명을 통해 묘주 생전의 경력과 위세를 선양하는 성격을 띤다. 상하로 호위하는 행렬의 구성과 묘주가 탄 우차의 형태에서 요양지역 상왕가촌묘 행렬도의 구성을 기본으로 더욱 웅장하고 다채롭게 이룬 것이다. 안악3호분의 행렬도는 회랑에 위치하고 묘문을 향하고 있지 않다.



도 30 行列圖, 408년,
前室 동벽, 德興里古墳

묵서보다도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이 묵서명이 덕흥리의 행렬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글이다. 주인공은 얼굴만 보이고 화개차는 앞의 것과 동일하다. 대열의 마지막에 크고, 차양이 긴 우교차가 있고 색동 치마를 입은 여자 시종 둘이 따른다.

안악3호분과 약수리의 행렬도에서 주인공은 우교차를 탔는데 덕흥리에서는 처음으로 묘주가 日傘 모습의 지붕이 있는 마차를 타고 있고, 선도하는 관리가 탄 수레와 마차 그리고 맨 뒤의 짐수레 형식의 세 대로 이루어진 행렬구성은 고구려 초기고분 중 덕흥리의 행렬도에서만 보인다.

묵서를 통해 묘주의 생전 출행 장면임이 확실하지만 행렬의 구성에서는 앞서 살핀 사후 영혼의 여행을 담은 한대 화상석묘의 행렬구성과 비슷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덕흥리고분 행렬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전실에서 묘문이 있는 남쪽을 향해 있다는 것이다.³⁸ 그리고 세대의 마차구성에서도 산동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정한 마차구성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행렬의 묵서에는 생전에 묘주의 위세적인 면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지만 묘문을 향

³⁸ 묘문을 향해 행렬이 진행되는 또 다른 고분은 평안남도 강서군의 태성리1호분이다. 무덤의 연도 서벽 북단에서 남쪽을 향해 일렬로 구성된 기마인물도가 그려졌는데 상반부가 파괴되어 말의 다리 일부만 보인다. 고구려의 전형적인 행렬도의 다른 예로서 약수리 벽화고분 전실 남벽 우측 상반부, 동벽, 북벽 우측에 걸쳐 길게 뻗어 있는 행렬도가 있다. 전실 벽면의 세 벽면을 활용해 행렬도를 그리는 것은 덕흥리와 같으나 약수리의 행렬도는 묘인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행렬은 빈 말이 선두에 서고, 묘주인의 우마차 그리고 긴 마차가 뒤따른다. 이곳에서 주인공은 소가 끄는 우교차를 탔고, 그 뒤에 또 한 대의 우차가 따른다. 그 전후좌우에는 기마 인물들이 호위하여 행진하고 있는데 구성은 안악3호분의 계통을 잇고 있다.



도 31 七寶行事圖, 408년, 德興里古墳

하고, 세 대의 마차구성은 죽은 후 묘주의 혼을 태우고 선계로 향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행렬도 이외에도 한대 화상석묘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 후실 동벽에 있는 칠보행사도의 장면은 수목 밑의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이 배치되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도31}.³⁹ 소년을 중심에 놓고 이루어지는 칠보행사는 다른 고구려 고분에서는 볼 수 없으나 중국의 화상석묘에서 비슷한 모습의 도상을 볼 수 있다. 산동지역에서는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한 도상이 많은데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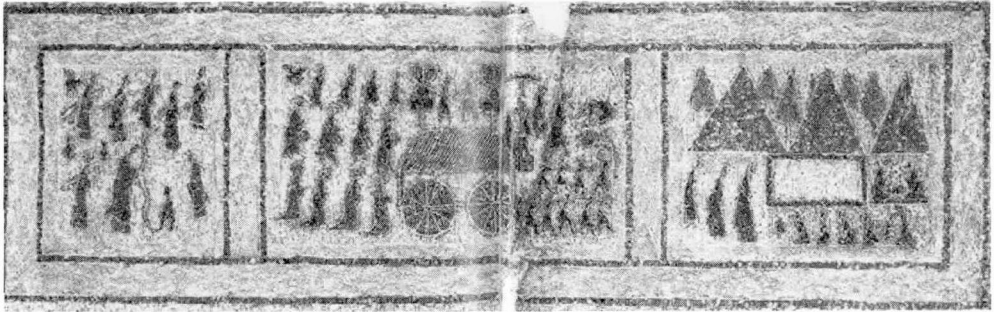
생겨난 도상이다.

전한 초기부터 추천을 통해 관리를 모집했는데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孝廉으로 뽑아 정기적으로 중앙에 천거하였다. 이 가운데는 유교 경전에 정통한 어린 소년들도 포함되었고 이런 유교적 신동이 자주 회화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공자의 선생이라고 전해지는 비범한 지혜와 학식을 가진 項橐이라는 어린아이의 초상화가 화상석에서는 보통 공자와 노자 사이에 나타나는데, 이 작은 소년은 장난감을 끌고 있고 공자와 노자는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년을 응시하고 있다^{도32}.⁴⁰

³⁹ 이 행사에 대해 진행된 연구들은 ① 행사의 주제는 칠보를 나무에 거는 것이고, 이 칠보는 淨土를 치장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金其雄, 『韓國의 壁畫古墳』(同和出版公社, 1982), p.266. ② 12월 8일에 七寶粥을 먹는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町田 章, 앞의 책, p.231. ③ 4월 8일에 치루어지는 일종의 공양으로 보는데, 이날 불교를 신봉하는 나라에서는 불상을 안치하는 대좌와 수레를 칠보로 꾸미고 또한 것발과 양산도 설치하여 행렬의 중심으로 만들고, 이것에 대해 공양을 하는데 특색은 寄伎, 曲藝 등의 藝能 행렬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행사의 명칭인 칠보에 주목하여 인도를 비롯한 여러 불교국가에서 행해지는 불교행사와 결부시켜 설명한다. 齋藤忠, 『壁畫古墳の系譜』(學生社, 1986). ④ 칠보행사도가 현세에서의 행사장면인 마사회와 함께 묘사되었으며, 마굿간, 외양간 같은 일상의 생활공간 옆에 연화와 연못이 배치된 점을 들어 묘주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불사가 시행된 것이고, 이 행사가 그려진 것은 現世求福뿐만 아니라 後世生과 관련 아래 행해진 불사, 즉 망자의 극락왕생과 자손의 복을 구하는 행사로 보는 것이다. 전호태, 「5세기 高句麗古墳壁畫에 나타난 佛敎의 來世觀」, 『韓國史論』 21(1989), pp.27-37. ⑤ 나무와 음식 등은 轉輪聖王인 大善見王이 거처하는 拘舍婆提城의 정경과 비슷하며, 칠보는 전륜성왕이 구유하는 7개의 보물을 가리킨다고 본다. 왕은 느릅나무 사이에 여러 개의 연꽃을 심고, 곁에서는 보시를 베풀어 먹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줬다고 한다. 성에는 느릅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려서 내는 묘한 소리가 들렸으며, 주야를 가리지 않고 나는 종소리로 떠들썩하였다고 한다. 深津行德, 「法體の王」, 『朝鮮半島に流入した諸文化要素の研究』(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93). 이러한 견해들은 대부분이 도상의 옆에 명시된 '칠보행사' 명칭으로 인해 불교 교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도 32 孔子見老子圖, 後漢, 嘉祥縣滿桐鄉 宋山 出土



도 33 送葬圖, 前漢(B.C. 73-33년), 微山縣微山島溝南村 出土

이러한 화상이 알려지면서 천재소년에 대한 내용이 아닌 현실의 이야기를 도상으로 묘사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장례과정에서 조문객들을 맞는 사자의 후손을 향탁의 모티프 형식으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산동의 미산 溝南村 석관에는 사실적인 장례과정이 남겨져 있다. 직사각형 구도로 이루어진 석관의 왼쪽에는 큰 키의 인물이 비단 두루마리를 아이에게 주는 장면이 있다⁴⁰. 어린 향탁에게 존경을 보내는 모티프와 유사하지만 여기에서는 손님이 사자의 집을 방문해

⁴⁰ 향탁을 소재로 한 화상을 중국에서는 '공자 노자를 만나다(公子見老子)'로 제목을 단다. 이 형상에 대해 "이 아이는 공자나 노자의 적수가 아니라 유교적 신동으로서, 매우 고상한 주제에 대한 담론을 하려는 모습"으로 보거나 혹은 유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정치적 은유로서 이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말이 옳다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과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외모나 직함 혹은 걸치레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우 흥, 김병준 역, 『순간과 영원—중국고대의 미술과 건축—』(아카넷, 2001), pp.508-509.

⁴¹ Wu Hung은 옆의 장면과 연결해서 실제 장례의 과정 속에서 후손의 모습으로 보는 반면 신림상은 '公子見老子圖'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옆의 두 장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한대 화상석 가운데 당시 장송의례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유일한 작품으로 보고 있다.

서 후손에게 선물을 주는 장례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장면을 연결해서 보면 확실해진다. 옆에는 4개의 바퀴가 있는 큰 장례차를 중심에 놓고 10명의 사람이 영구차를 끌고 있다. 마지막 부분은 세 개의 삼각형 모습을 한 봉분 앞에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무덤구멍을 파 놓은 것에서 장례의 과정을 그린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5세기 초 고구려의 불교이론 전파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중국 항탁의 화상처럼 어린아이가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도상적인 유사성으로 볼 때 이것은 덕흥리고분을 조성한 사람들이 화상석묘에 그려진 모티프에 대해 정보가 풍부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전실 서벽의 하단에 영겨 있는 가지와 손가락 같은 잎이 달린 수목이 있고 나무에 묶여 있는 말과 마부가 대칭을 이루며 묘사되어 있다. 현실의 나무에서는 찾기 어려운 모습으로 산동과 산서 등지의 중국 화상석에서 독립된 화면의 제재로 자주 볼 수 있다. 하늘과 땅을 잇는 宇宙樹로 생명의 근원으로 보는 관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IV. 덕흥리고분의 高句麗의 특징

덕흥리고분의 전실 천정에는 천상의 존재를 의미하는 여러 도상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日月 등의 천체 이외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목서가 있는 도상과 없는 도상으로 나눌 수 있다. 목서가 있는 도상군의 공통점은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서가 있는 도상 가운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견우·직녀와 선인·옥녀가 각 2인씩 있다. 사람의 형상을 한 도상 6개 이외에는 괴금·괴수의 모습을 띠고 있다. 목서가 없는 도상군은 북벽 동쪽 가장자리, 동벽, 남벽의 절반까지 이어 산악을 배경으로 수렵을 하는 여덟 명의 말을 탄 인물과 아홉 마리의 동물이 있고 현세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전실 천정의 도상군들은 중국의 어느 화상석묘나 벽화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당시 고구려의 천상세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서 그리고 있다.

1. 견우·직녀

전실 남쪽 천정의 대각선 방향으로 굴곡져 이어진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견우는 왼쪽에 직녀는 오른쪽에서 견우를 바라보고 있다³⁴. 견우는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선 자세로 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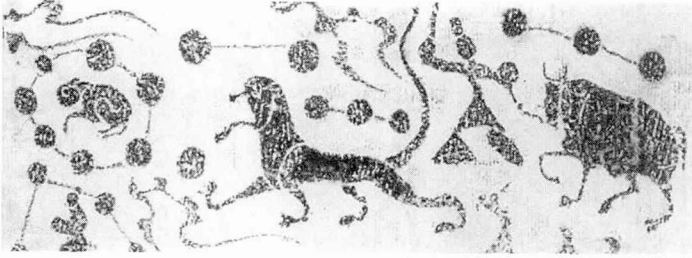
도 34 牽牛·織女, 408년,
前室 남쪽天井,
德興里古墳

에는 소의 고삐를 잡고 오른손은 들어올린 모습이고, 직녀는 두 손을 소매 속에 감춘 채 서 있으며 검은 개가 뒤따르고 있다. 견우와 직녀는 의복과 관모, 머리모양에서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으나 견우가 작은 구름을 타고 있다. 견우는 백색의 가운데가 들어간 관을 쓰고 황색의 긴 옷에 끈으로 허리를 묶었고, 직녀는 승袿의 긴 저고리와 녹색과 흰색을 세로로 번갈아가며 한 줄씩 배합한 치마를 입었다. 머리는 높이 올리고 양 옆으로 조금씩 늘어뜨렸다. 견우의 좌측에는 '牽牛之象'이라는 묵서명이 있고, 직녀의 좌측에는 '□□之象'이라고 일부 묵서명이 지워졌지만 그림의 내용으로 보아 織女임이 분명하다.

중국에서 견우·직녀는 성수표현과 함께 등장하고 남쪽에 있다는 방위개념이 있고, 화상석묘에서 소량 발견된다.⁴² 河南省 南陽市 白灘 출토 후한대의 화상석에는 星座와 함께 새겨진 견우·직녀·호랑이·월을 볼 수 있다³⁵. 화상석 왼쪽 위쪽에 七星이 원형을 이루고 그 안에는 옥토끼가 있는데 달을 표시한 것이다. 그 밑에 四星으로 사다리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머리를 높이 올린 여자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여자는 직녀에 해당하고 사상은 직녀의 별자리인 女宿를 형상화한 것이다. 중간 위치에 백호와 성좌가 있고 오른쪽 위쪽에 三星이 있는데 견우의 별자리인 河鼓인 것이다. 그 밑에 소를 끄는 견우가 있고 도상들 사이에 운기가 묘사되어 있다.⁴³

⁴² 견우·직녀설화와 하늘의 별자리와 관련된 것은 『史記』 「天官書」에 “견우는 犧牲을 담당한다. 그 북쪽에 河鼓가 있다. 河鼓의 大星은 上將, 좌우의 별은 左右將이다. 婺女가 있다. 그 북쪽에 織女가 있다. 직녀는 하늘의 女孫이다”라고 기록되었고 여기에서는 河鼓의 남쪽에 견우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爾雅』 「釋天」은 河鼓, 곧 견우성으로 규정한다. 小南一郎, 「西王母と七夕傳承」, 『東方學報』 46(1974), pp.33-34.

⁴³ 화상석의 설명은 王建中·閃修山 著, 『南陽兩漢畫像石』(文物出版社, 1990), 圖 277과 周到, 「南陽漢畫像石中的



도 35 牽牛·織女畫像石,
後漢, 河南南陽白灘
出土

또 다른 예로 山東省 肥城縣의 孝堂山祠堂은 永建四年(129년) 以前에 지은 것으로 사당의 남북으로 걸쳐진 石梁의 아랫면에 직녀, 日月, 星座, 새가 새겨져 있고 배치는 남쪽에 직녀·日·南斗六星·새가 있고 공백부를 거쳐 북쪽에 月·北斗七星이 있다.⁴⁴ 달 옆에 일직선으로 늘어선 세 개의 별에 대해 직녀와 그 머리부분에 있는 직녀성과 대치되어 배치한 견우성인 河鼓로 본다. 이처럼 청룡·백호·일월 등 방위 개념을 가진 도상과 함께 등장하고, 효당산 사당에서는 軸이라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고구려에서 견우·직녀는 고분 안에서 인물로 형상화되어 그려지고 있다. 덕흥리고분 이외에도 平安南道 南浦市에 위치한 大安里1호분(5세기 중엽) 후실 남벽 동측 상부에 직녀도로 생각되는 도상이 있다.⁴⁵

특히 덕흥리고분은 방위개념의 세심한 고려를 살필 수 있다. 전실 북벽에 그린 묘주가 바라보는 시각의 정면에 해당하는 남벽 중심 왼쪽에 견우상이 있고 오른쪽에 직녀상을 배치하고 있다. 班固의 『西都賦』에 “곤명지의 견우는 왼쪽에 그리고 직녀는 오른쪽에 놓았다”는 문헌기록이 있다.⁴⁶ 중국에서는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을 의미하는데 덕흥리의 견우상

几幅繪天象圖, 『考古』(1975年 1期), pp.58-61 참조.

⁴⁴ 羅哲文, 「孝堂山郭氏墓石祠」, 『文物』(1961年 4·5期), pp.44-56 참조.

⁴⁵ 중국과 고구려의 견우·직녀의 실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도상적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견우는 ① 양손의 표현에서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소의 고삐를 쥐는 모습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리고 ② 머리에 관을 쓴 모습, ③ 허리에 끈을 맨 의복표현을 들 수 있다. 직녀는 ① 소매 안에 손을 모은 자세, ② 방직의 도구와 함께 그린 것, ③ 견우와 함께 그린 점이 특징이다. 덕흥리의 견우상은 오른손을 들고 왼손으로 소를 끌고, 직녀는 손을 소매 안으로 모으고 있는 모습에서 중국의 견우·직녀의 도상에 근거해서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견우의 오른손과 왼손은 다른 신체부위보다도 더 크고 부자연스럽게 그렸는데 이는 화가가 견우가 쥐는 손의 특징을 알고 있었고 이를 표현하려고 했으나 잘 표현되지 않아 어색하게 그린 것 같다.

⁴⁶ 班固, 『西都賦』 “集乎豫章之宇, 臨乎昆明之池. 左牽牛而右織女, 似云漢之無涯.” 이외에도 張衡, 『西京賦』 “乃有昆明靈沼, 墨水玄陟, …牽牛立其左, 織女處其右, 日月于是乎出入, 象扶桑餘濊汜.”에서도 견우와 직녀의 위치를 알 수 있다. 湯池, 「西漢石彫牽牛織女辯」, 『文物』(1979年 2期), pp.87-88.

이 그려진 위치는 묘실구조에서 동쪽편에 해당하고 직녀는 서쪽편에 그리고 있다. 고분의 조성자들은 이러한 방향과 위치관념에 따라 세심하게 견우·직녀 도상을 배치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덕흥리고분에서는 견우·직녀는 묘주의 부부애를 나타내는 부분이 강하다.⁴⁷



도 36 猩猩, 408년, 前室 남쪽天井, 德興里古墳

2. 前室 천정의 怪禽·怪獸

다음으로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전실 천정의 18개의 괴금과 괴수의 성격을 파악해 보겠다. 남쪽에 猩猩, 富貴, 吉利 3개의 도상이 있고, 동쪽에는 靑陽, 飛魚, 陽光, 설명이 없는 도상을 포함 4개가 존재한다. 서쪽 천정에는 千秋, 萬歲가 있고 북쪽에는 가장 많은 9개의 도상이 있는데 天雀, 地軸, 天馬, 辟毒, 博位, 賀鳥, 零陽, 喙遠, 설명이 없는 짐승이 있다. 18개 중 10개인 비어, 양광, 천추, 만세, 성성, 지축, 천마, 박위는 문헌기록이 전해지고 나머지는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출전을 알 수 있는 도상들은 문헌 중에서 지리서적인 성격이 강한 『山海經』에 다수가 근거하고 있다.⁴⁸ 『산해경』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천정의 도상들을 분석해 보면 방위개념으로 괴금·괴수를 배치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그 외의 괴금·괴수는 길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벽의 猩猩은 견우와 직녀 아래에 위치하고 人頭獸身의 모습으로 '猩猩之像'이라는 목서명이 있는데 도 36, '이것을 먹으면 달음박질을 잘한다고 『山海經』 「南山經」 편에 기록되어 있다.⁴⁹ 길상이나 상서의 특별한 의미를 갖기보다는 「남산경」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위

⁴⁷ 후실 북벽에 부인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볼 때 남편인 묘주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후손들은 부모들이 견우·직녀처럼 해후하여 하늘세계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 安輝濬, 「中國古代繪畫의 特性과 意義(下)」, 『美術資料』 42(1999), p.32.

⁴⁸ 칼텐마크(M. Kaltenmark), 孫作雲, 李豐楙 교수 등 다수의 신화학자들은 神鳥 토템으로 특징짓는 동이계 신화가 『산해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鄭在書, 『不死의 신화와 전설』(民音社, 1994), 주77 재인용.

⁴⁹ 『산해경』 「남산경」: "(남산경의 첫머리는 작산이라는 곳이다. 작산의 첫머리는 소요산이라는 곳인데 서해변에 임해 있으며 계수나무가 많이 자라고 금과 옥이 많이 난다.) 이곳의 어떤 짐승은 생김새가 긴꼬리원숭이 같은데



도 37 吉利, 408년, 前室 남쪽天井, 德興里古墳



도 38 富貴, 408년, 前室 남쪽天井, 德興里古墳

관념으로 남쪽 천정에 배치한 것으로 본다.

직녀의 옆과 위쪽에 얼굴은 짐승이고 몸통은 새로 이루어진 두 마리의 괴금이 上下로 배치되어 있고 위는 '吉利之像'도37, 아래에는 '富貴之像'이라고 목서가 있다도38. 부귀와 길리는 명칭상으로 쌍을 이루는 길조로 추측되나 유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부귀, 길리라는 이름으로 보아 길상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한다.

동벽 천정에는 안에 三足鳥가 있는 日像이 중앙에 위치하고 해의 좌측 위쪽에 飛魚가 있다도39. 생김새는 물고기 같은데 양 옆에 날개가 달린 鳥翼魚身 형태로 몸에는 둥근 무늬가 보인다. 『산해경』에서는 「中山經」과 「西次三經」에 기록되어 있어 방위개념은 갖고 있지 않다. 비어를 먹으면 치질 또는 미친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천둥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무기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산해경』에서 비어와 형태가 같은 文鰩魚 기록에서 이것이 나타나면 풍년이 든다고 하는 상서의 의미를 지닌 존재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⁵⁰

귀가 희고 기어다니다가 사람같이 달리기도 한다. 이름은 성성이라고 하며 이것을 먹으면 달음박질을 잘하게 된다.(有獸焉, 其狀如禺而白耳, 伏行人走, 其名曰猩猩, 食之善走) 이하 『산해경』의 해석은 鄭在書 譯註, 『山海經』(민음사, 1985)에 따랐다.

50 『산해경』 「중산경」: “노수가 여기에서 나와 서쪽으로 흘수에 흘러든다. 이곳에는 비어가 많은데 생김새가 붕어 같다. 이것을 먹으면 치질을 낫게 할 수 있다.(勞水出焉, 而西流注于瀟水. 是多飛魚, 其狀如鰩魚, 食之已痔瘻)” 또 다른 「중산경」에서는 “다시 동쪽으로 10리를 가면 … 飛魚가 많은데 생김새는 돼지 같으나 붉은 무늬가 있다. 이것을 먹으면 천둥을 무서워하지 않고 무기를 막을 수 있다.(其中多飛魚, 其狀如豚而赤文, 服之不畏雷, 可以禦兵)” 「西次三經」의 문요어는 비어와 같은 鳥翼魚身의 모습이다. “다시 서쪽으로 180리를 가면 … 문요어가 많은데 생김새가 잉어 같고 물고기의 몸에 새의 날개가 있으며 푸른 무늬와 흰 머리에 붉은 주둥이를 하고 있다. 늘 서해를 다니고 동해에서 노닐며 밤이면 날아다닌다. 그 소리는 鸞雞 같고 맛은 시고 단데, 이것을 먹으면



도 39 飛魚, 408년, 前室 동쪽天井, 德興里古墳



도 40 陽光, 408년, 前室 동쪽天井, 德興里古墳

일상 아래에는 양쪽 날개를 펼치고 머리에 鷄冠 같은 것이 솟은 새가 북쪽을 향해 서 있다. 발 아래에는 소용돌이치는 불꽃이 그려져 있으며 좌측에 '陽光之鳥履火而行'이라는 묵서명이 있다⁴⁰. 양광의 두 번째 글자인 '光'을 '燿'자로 보고 '양수'라고 해서 태양에서 불을 모으는 凹面鏡을 생물화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⁵¹ 양수는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多鈕鏡의 일종으로 벽화의 양광이 태양 아래에 위치하고 묵서의 '履火'와 같이 발 아래에 소용돌이 모양의 불꽃이 그려진 것과 양수의 성질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수가 불을 일으키는 기구라는 점에서 양수는 '빛을 발생한다'라든가 '빛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길상어로 이해된다.⁵²



도 41 靑陽, 408년, 前室 동쪽天井, 德興里古墳

동쪽 천정의 좌측에는 하나의 몸통에 두 개의 머리가 달린 새가 있는데 머리는 학과 비슷하고 앞에 '靑陽之鳥一身兩頭'라는 묵서가 있다⁴¹. 靑陽은 『爾雅』「釋天」의 “春爲靑陽,

미친 병을 낮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나타나면 천하에 大豐이 든다.(是多文鯨魚, 狀如鯉魚, 魚身而鳥翼, 蒼文而白首, 赤喙, 常行西海, 遊于東海, 以夜飛. 其音如鸞雞, 其味酸甘, 食之已狂, 見則天下大饑)”

⁵¹ 양광에 대한 문헌기록은 찾을 수 없고, '양수'라는 기구를 生物로 표현한 다른 예 역시 알려진 것은 없다. 南秀雄, 「高句麗古墳壁畫の圖像構成—天井壁畫を中心—to—」, 『朝鮮文化研究』2號(1995. 3), p.47.

⁵² 佐伯有清, 「食大蒼考—德興里高句麗壁畫古墳の墓誌に關聯して」, 『日本常民文化記要』13(1987) (『古代東アジア金石文論考』(吉川弘文館, 1995)에 재수록).



도 42 千秋, 408년, 前室 서쪽天井, 德興里古墳



도 43 萬歲, 408년, 前室 서쪽天井, 德興里古墳

夏爲朱明, 秋爲白藏, 冬爲玄英”라는 기록에서 봄을 뜻하고, 『禮記』 「月令」에서도 “孟春之月…天子居青陽左个天子”라 하여 동당을 뜻한다는 점에서 단어 자체에 봄 또는 동쪽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⁵³ 동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동벽에 그려진 것으로 보고 방위개념으로 이해한다.

서쪽 천정 옥녀 옆으로 人頭鳥身의 모습을 한 ‘千秋之像’과 ‘萬歲之像’ 목서가 있는 도상이 상하로 있다^{도42, 43}. 천추와 만세는 『抱朴子』 「內篇·對俗篇」에서 장수하는 것을 열거하는 가운데 나온다.⁵⁴ 따라서 묘주인이 사후세계에서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길상적인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본다.

전실 북벽은 상단에 3개의 도상과 하단의 6개의 도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벽 상단에 위치하는 도상의 목서는 ‘天雀之像’, ‘地軸一身兩頭’, ‘天馬之像’ 순서로 있다. 중앙의 지축을 사이에 두고 새와 말의 신체를 이루는 도상이 대칭적으로 있다. 북벽 하단의 6개의 도상은 왼쪽에서부터 ‘零陽之像學道不成頭生七□’, ‘辟毒之像’, ‘喙遠之像’, ‘賀鳥之像學道不成背角藥□’, ‘博位之猗頭生四耳□有(得)自明在於右’ 형태를 알 수 없는 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지축, 천마, 천작, 박위는 출전을 알 수 있다.

⁵³ 南秀雄, 앞의 논문, 주47 재인용. 『大漢和辭典』 12卷 118쪽에 隋代에 저술된 牛弘의 『明堂議』에 “東曰青陽, 南曰明堂, 西曰總章, 北曰玄堂, 中曰大室”의 글에서도 청양이 동쪽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⁵⁴ 『抱朴子』 「內篇·對俗篇」: “천추의 새, 만세의 짐승 모두 사람 얼굴에 새의 몸으로 목숨 역시 그 명칭과 같다.(千秋之鳥, 萬歲之禽, 皆人面而鳥身, 壽亦如其名)”

먼저 중앙에 있는 지축은 '地軸一身兩頭'라는 목서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북두칠성 아래에 있고, 짐승의 몸에 양쪽에 사람의 머리가 붙어 있다⁴⁴. 양쪽 人頭에 가는 두 개의 끈을 단 모자를 썼고, 왼쪽의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에 깃털이 나 있으나 오른쪽에서는 볼 수 없다. 한대부터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헌에서 '地軸'이란 말을 찾아보면 『太平御覽』卷38, 「河圖括地象」에서 "崑崙之山爲地首, 上爲握契, 滿爲四瀆, 橫爲地軸, 上爲天鎮, 立爲八柱", 그리고 『北堂書鈔』「河圖括地象」에서 "崑崙山爲地軸"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곤륜산 부근의 지하에 축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博物志』卷一에서도 찾을 수 있다.⁵⁵



도 44 地軸, 408년, 前室 북쪽天井, 德興里古墳

『十洲記』에서 곤륜산 위에 북두칠성이 있고 특히 旋機에 대응해서 있다는 기록이 있다. 선기는 북두의 2星과 3星으로 우주의 축을 회전케 하는 기능이 있고, 玉衡은 북두의 5星으로 하늘의 음양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곤륜산과 북두와의 대응은 북두칠성-곤륜산-지축이라는 관계로, 곤륜산을 중심으로 하늘의 운동을 북두가 담당하고 땅의 운동은 지축이 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된다.⁵⁶

덕흥리의 지축은 북벽 중앙부의 북두칠성 아래에 있고 이를 중심으로 몇 개의 도상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문헌자료와 비교해서 이 도상이 북두칠성 아래에 있는 땅의 운동을 주관하는 땅의 축의 존재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묘실의 중심축인 북벽 중심에 배치되어 방위를 상징하는 도상으로 파악한다.

지축의 우측에 있는 天馬는 앞발 중 하나는 크게 앞으로 뻗었고 뒷발 하나는 뒤로 뻗어 비상하는 모습으로 꼬리는 수직으로 올라가 바람에 가로로 길게 뻗치고, 갈기도 바람에 흩날리는 톱니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날개는 보이지 않는다^{도8}. 좌측에 '天馬之像'이라는 목서

⁵⁵ 『博物志』卷一：“崑崙山北，地軸下三千六百里，有八玄幽下方二十万里，地下有四柱，四柱廣十万里，地有三千六百軸，太牙相牽”이 있고, 『太平御覽』卷36 「河圖括地象」에서도 “崑崙山爲柱，氣上通天，崑崙者地之中也，下有八柱，柱廣十万里，有三千六百軸，互相牽制” 기록이 있다. 이렇듯 곤륜산 부근에 대지의 축이 있다는 인식은 있었던 듯하지만 구체적인 모습은 문헌에서 볼 수 없다. 南秀雄, 「高句麗壁畫の地軸像」, 『古文化談叢』30(北九州市, 1993), p.950.

⁵⁶ 南秀雄, 위의 논문(1993), pp.950-951.



도 45 博位, 408년, 前室 북쪽 天井,
德興里古墳

명이 있다. 『晉書』 『天文志』에는 별자리의 이름인 천마가 3개 나오는데 그 하나로 北方 현무의 별자리에 속하는 建星 6성이 확인되며 북쪽 방위를 나타내는 지표 구실을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도상의 친연성이 언급된 주천 정가갑5호묘에도 전실 북쪽 천정에 허공을 나는 듯 달리는 神馬가 있다 도7. 그리고 경주 천마총 출토의 障泥의 그림도 덕흥리의 천마와 형태적 공통점이 있다.⁵⁷ 덕흥리고분의 천마는 천정의 수렵도에 있는 말과는 명료하게 다르게 그려 천상의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天雀은 지축의 좌측에 위치하고 머리와 꼬리 부분에는 깃털이 나 있고 반점이 있다. 천작이 鳳을 가리키는 雲雀의 異名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⁵⁸ 이름이 같으므로 천작이 봉을 의미할 수도 있다. 四川省 출토 후한대 화상전 중에서 '鳳凰出'이라는 명문을 갖고 있고, 벽화의 천작과 비슷하게 생긴 봉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봉황은 수컷인 봉과 암컷인 황으로 이루어진 한 쌍으로서 두 마리가 동시에 표현되기도 하지만 단독으로 표현될 때에는 봉만이 출현하고 있다. 벽화의 천작이 봉을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고, 길상적인 의미를 갖는 그림으로 이해한다.⁵⁹

博位는 천마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말이나 양과 비슷하게 생긴 짐승으로 4개의 귀가 머리 위로 높이 솟고 다리는 기묘하게 굽어 있다^{도45}. 목에서 몸통으로 내려오면서 붉은 반점이 있고 좌측에 목서가 있다. 『山海經』에는 '박위'의 명칭은 없고 '獬豸'라는 명칭을 가진 동물을 「南山經」에서 볼 수 있다. 박위와 음이 상통하고 네 개의 귀는 설명이 같다.⁶⁰ 또한 전체 형태는 『산해경』에 기록된 양에 가깝다는 것과 맞는 부분이 있다. 방위개념이나 이것을 지니

57 倫藤秋南은 주천 정가갑5호묘의 신마를 경주 155호분(천마총) 출토 장니화와 같은 날개 없는 天馬圖 계열로 보고 경주 장니화를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편년한다. 倫藤秋南, 「慶州天馬塚出土の障泥にみられる天馬圖と唐草文」, 『考古學論考—齋藤忠先生頌壽記念論文集』上(吉川弘文館, 1988), pp.524-525.

58 雲雀이 鳳을 뜻하는 것은 『魏都賦』: "雲雀踞而矯首"에 대해 左思가 "向曰, 雲雀, 鳳也"라는 주를 적어서 알 수 있다.

59 林巳奈夫, 「鳳凰の圖像の系譜」, 『考古學雜誌』 52-1(1966), p.15.

60 『산해경』, 「남산경 중 남산경」: "다시 동쪽으로 300리를 가면...이곳의 어떤 짐승은 생김새가 양 같은데 아홉 개의 꼬리와 네 개의 귀를 갖고 있고 눈은 등 뒤에 붙어 있다. 이름을 獬豸라고 하며, 이것을 지니면 두렵지 않다.(其獸焉 其狀如羊, 九尾四耳, 其日在背, 其名曰獬豸, 佩之不畏)"

면 두렵지 않다는 등의 기록에서 길상적인 의미는 찾기 힘들다.

霽陽은 북쪽 천정의 좌측 아래에 머리에 6-7개의 뿔이 나 있고 말이나 사슴 종류로 보이는 짐승이다. 영양의 '甕'은 '甿'과 같은 뜻으로 해석되므로, 산 속에서 거주하는 영양류에 속하는 동물로 볼 수 있다.⁶¹ 머리에 나 있는 뿔 때문에 끝의 지워진 글자는 '角'의 뜻을 가진 문자로 추정된다.

賀鳥는 묘지명 바로 위에 위치하고 얼굴은 사람이고 몸통은 새인 형상으로 몸과 꼬리를 길게 늘이고 날개를 활짝 펴고 있다. 등에 단지 같은 것을 지고 있다. 喙遠은 천정 묘지명의 좌측에 하반부만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부분이 새의 모습을 하고 있다. 辟毒은 밑에만 남아 있는데 새의 모습으로 판단된다. 벽독은 독을 피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독을 막는 신, 벽사로 보거나 독을 피하는 효능이 있는 생물군으로 분류하기도 한다.⁶²

이상과 같이 덕흥리고분 전실 천정벽화는 수렵과 관련된 도상을 제외하고 日月星宿와 견우·직녀, 18개의 괴금·괴수와 그리고 선인·옥녀 3인을 포함해서 23개의 도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미와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고구려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괴금·괴수	방위개념을 지닌 것	길조의 의미	의미가 불분명한 것
남벽	성성, 부귀, 길리(3개)	성성(견우·직녀)	부귀, 길리	.
동쪽	청양, 비어, 양광, 알 수 없는 것(4개)	청양	양광, 비어	.
서쪽	천추, 만세(2개)	.	천추, 만세	.
북쪽	지축, 천마, 천작, 벽독, 박위, 하조, 영양, 휘원, 설명이 없는 짐승(9개)	지축, 천마	천작	벽독, 박위, 하조, 영양, 휘원

북벽의 지축과 천마, 남벽의 견우·직녀와 성성은 방위의 개념을 가진 도상들이고 이에 위치를 고려해서 그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벽과 동벽에는 일월상과 별자리로 방위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⁶³ 묘실장식에서 천정부문에 천상표현을 하는 것은 한대부터 있었던

⁶¹ 남수용, 「高句麗古墳壁畫の圖像構成—天井壁畫を中心に—」(1995), 주 45 재인용 『『大漢化辭典』12卷, pp.924-925』

⁶² 남수용, 위의 논문(1995), p.49.

⁶³ 덕흥리고분의 전실 천정에는 고구려 천문의 특징인 北斗七星·南斗六星·東雙三星·西雙三星이라는 4방위 별자리가 나타난다. 중국의 천문체계는 북극을 정점으로 가상적인 커다란 원을 그려 하늘의 적도가 되면 이 적도

전통이지만, 덕흥리는 천상존재들에 방위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祥瑞의 존재나 유교적인 내용이 천정에 위치하고 있다. 방위의 개념이 들어간 것은 동왕공과 서왕모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나 덕흥리에서는 별자리 구성과 일월표현 그리고 『산해경』에서 찾을 수 있는 천상의 존재들을 특히 방위개념에 유념해서 그리고 있다. 고구려의 천문사상을 살펴보았듯이 당시 고구려인들의 구체적인 하늘에 대한 사상을 전설 천정부분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덕흥리고분의 구조와 제재들은 중국 묘실조성에서 단선적인 전통만을 따르지 않고 여러 지역과 시대의 요소를 모은 것을 알 수 있다. 덕흥리고분을 조성한 408년에 중국은 위진 시대에 해당하고 동시대 중국에서 거리적으로 먼 서북지역과 요양지역의 요소와 한대 화상석묘의 전통이 공존하고 있다. 한대 화상석묘 조성 내용에 대해 위진시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인 고분조성 지식이 전래되었고 또한 위진시대의 분묘가 한대 화상석묘를 훼손하고 건조되는 과정을 통해 기회가 제공되었을 것이다.

먼저 위진시대 서북지역의 주천 정가갑과의 관련성은 종렬배치의 이실묘 구조, 산악으로 표현한 경계, 선인과 천마의 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심제재인 묘주상과 13군배례도는 요양지역에서 유행하던 제재를 채택한 것이다.

목서를 통해 묘주의 생전의 위세를 보여주는 행렬도는 세 대의 마차구성과 묘문을 향한 방향성에서 산동지역에 융성했던 한대 화상석묘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이 묘실구성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후실의 묘주부부 옆에 대기하는 시종에서부터 통로의 거마와 우교차, 전실의 행렬도와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떠남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행렬의 방향성으로 표현된 선계를 지향하는 관념은 전설 북벽의 묘주인이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견우, 직녀, 선인과 옥녀와도 연결된다. 이들은 묘주가 선계에서 만나기를 바라는 인물

주변의 별자리 중 밝은 별들을 연결하여 28개의 기준 별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28宿 체제를 이룬다. 고구려는 중국의 천문사상을 흡수하면서 고구려적인 전통을 수립했는데 ‘三重天文 方位指標體系’의 관념이 뚜렷하고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적인 현상이다. 金一權, 「古代 中國과 韓國의 天文思想 研究—漢唐代 祭天 儀禮와 高句麗 古墳壁畫 天文圖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대학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pp.305-355.

들이며 이들의 시중과 음식공양 받기를 염원한 것이다. 칠보행사도와 말과 마부의 모습도 산동지역의 화상석묘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덕흥리고분의 조성자들이 중국 고분조성의 지식에 해박했고 이를 재배치하여 새롭게 묘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대 극성을 이룬 화상석묘의 중심 제재인 행렬도를 중심에 놓고, 당대 지역적으로 지극히 먼 서북지역의 고분형식을 빌어와 자신들의 가치관이 투영된 천상세계를 표현하여 덕흥리를 창조한 것이다. 하나의 고분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인적 공력과 재력이 감당되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덕흥리를 조성한 집단은 고구려의 정치집단 가운데서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로 판단된다.

안악3호분이 요양지역의 묘실구조와 제재를 선택해서 나열적으로 묘를 구성했던 것에 비교하면 덕흥리고분은 보다 광범위하게 중국의 묘실조성의 전통과 동시대 경향을 모은 것이다. 427년 천도 이전에 고구려는 평양 지역에 九寺를 설치하는 등 새롭게 국가적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으로 삼고자 하였다. 유주자사 진의 후손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 평양에 호기롭게 한대부터 위진시대에 걸쳐 고분조성의 원칙, 구조, 제재, 의미를 취합해서 덕흥리를 창조했음을 알 수 있다.

* 주제어(key words) — 德興里古墳(Deokheungni Tumulus), 酒泉丁家閘5號墓(Chiuch-uan Jeonggap Tomb No.5), 墓主像(tomb owner's figures), 行列圖(procession paintings), 怪禽·怪獸(Monstrous birds and beasts)

국문초록

이 논문은 高句麗 古墳壁畫 가운데 人物風俗系에 속하는 초기고분으로 408년이라는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德興里古墳의 조성에서 중국의 어느 시대적, 지역적 요소를 도입했는지 살펴봄으로써 고분의 특징을 명확히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덕흥리고분은 중국의 魏·晉시대 西北지역과 遼陽지역의 요소 그리고 漢代 山東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畫像石墓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위·진시대 서북지역의 요소로 들 수 있는 것은 前, 後室의 縱列배치 구조로 4세기에 조성된 고분 구조 가운데 서북지역의 감속성과 고구려지역에서만 관찰된다. 특히 덕흥리고분은 서북지역의 酒泉 丁家灣5號墳(十六國時代, 386-441, 이하 정가갑5호분)과 가장 유사한 묘실구조와 더불어 여러 가지 제재에서 유사성을 보여 주목된다. 전실 천정의 옷자락을 통해 飛行하는 仙人像, 북벽 천정의 天馬 특히 천정과 벽면을 가르는 산악을 경계로 천상세계와 현실세계로 나누고 있는 것은 위·진시대 벽화 중 덕흥리고분과 정가갑5호분에서만 볼 수 있다.

덕흥리고분은 제재 면에서 위·진시대 요양지역에서 주류를 이룬 묘주부부상과 출행도를 중심에 놓고 조성하고 있다. 당시 요양지역 벽화에서는 묘주상이 집중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부부합장이 복을 가져 온다는 장송관념으로 인해 묘주의 부인이 함께 표현되는 예를 많이 찾을 수 있다. 덕흥리고분의 묘주 진의 초상화는 전실의 북벽과 후실의 북벽 두 군데에 있는데, 전실 북벽의 초상화는 서벽에 그려진 13명 태수들의 배례를 받는 모습과 남벽의 관리들에게 관직을 수여하는 장면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성은 생전 관리로서 묘주의 위세와 역할을 어느 고분보다도 극대화하는 유교적인 성격으로 파악된다.

한대 화상석묘의 특징인 행렬도의 구성과 방향성은 덕흥리고분 조성의 가장 핵심 제재이자 중심 흐름을 만들고 있다. 목서를 통해 묘주의 생전 출행 장면임이 확실하지만 행렬의 구성에서는 사후 영혼의 여행을 담은 한대 화상석묘의 세 대의 마차구성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덕흥리고분 행렬도에서 가장 큰 특징은 행렬이 묘문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후실의 묘주부부 옆에 대기하는 시종에서부터 통로의 거마와 우교차, 전실의 행렬도와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떠남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행렬의 방향성으로 표현된 선계를 지향하는 관념은 전실 북벽의 묘주인이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건우·직녀, 선인과 옥녀와도 연결된다. 이들은 묘주가 선계에서 만나기를 바라는 인물들이며 이들의 시종과 음식공양을 받는 부분을 염원한 것이다. 칠보행사도와 말과 마부의 모습도 산동지역의 화상석묘에서 볼 수 있는 화상들이다.

덕흥리고분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전실 천정벽화는 수렵과 관련된 도상을 제외하고 日月星宿와 견우·직녀, 18개의 괴금·괴수와 그리고 선인·옥녀 3인을 포함해서 23개의 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벽의 지축과 천마, 남벽의 견우·직녀와 성성은 방위의 개념을 가진 도상들이고 위치를 고려해서 그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벽과 동벽에는 일월상과 별자리로 방위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묘실장식에서 천정부분에 천상표현을 하는 것은 한대부터 있었던 전통이지만, 덕흥리는 천상 존재들에 방위의 개념을 도입해서 그리고 있다. 덕흥리에서는 별자리 구성과 일월표현 그리고 『산해경』에서 찾을 수 있는 천상의 존재들을 특히 방위개념에 유념해서 그리고 있다. 당시 고구려인들의 구체적인 하늘에 대한 사상을 전실 천정부분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덕흥리고분의 구조와 제재들은 중국의 단선적인 전통만을 따르지 않고 여러 지역과 시대 요소를 모은 것임을 알 수 있다. 427년 천도 이전에 고구려는 평양 지역에 九寺를 설치하는 등 새롭게 국가적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으로 삼았고 유주자사 진의 후손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 평양에 호기롭게 중국 한대부터 위·진시대에 걸쳐 고분조성의 원칙, 구조, 제재, 의미를 취합한 가운데 고구려만의 천체 관념을 넣어 덕흥리를 창조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Murals in the Deokheung-ri Tomb and their Relationship to China

Park hyunju*

Among the ancient wall-paintings of Goguryeo, those at Doekheung-ri tomb belong to the category of figure-genre paintings and characteristically have a definite date of creation (408 A.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eatures of murals in the Doekheung-ri tomb by examining how the Chinese influence was reflected.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they show characteristics of stone cave murals from the northwestern part of Liaoyang province of the Wei and Jin dynasties as well as those of the Shandong regions of the Han dynasty.

Among the northwestern elements found at Doekheung-ri which is assumed to have originated from Wei and Jin, noteworthy is the lengthwise arrangement of the front and back rooms. This is a feature detected only in the Gansu region of northwestern region of China other than Goguryeo, found among the tomb structures constructed in the 4th century A.D. Interestingly enough, the Deokheung-ri tomb is similar to Jeonggagap cave no. 5 in Zhouquan (from the sixteen-nations period, 386-441 A.D., hereinafter Jeonggagap cave no. 5), in terms of its internal structure and various other subject matters. For example the image of an flying deities with the drapery flowing on the antechamber ceiling, celestial horses portrayed on the northern wall's ceiling, plus the very fact that the division of the ceiling and walls represents heaven and earth are

* Curato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found only on Deokheung-ri paintings other than Jeonggagap cave no. 5 of Chinese Wei and Jin. Regarding the subject matter, Deokheung-ri paintings place a traveling scene of husband and wife in the center, which was fashionable during Wei and Jin periods among the tombs of Liaoyang region. These murals at the time focused on the husband and the wife, who were patron and patroness of the painter, and this was based on the local belief that burying them together brought good luck. Portraits of Jin the patron at the Doekheung-ri tomb are located on the northern walls of the fore-room and the back room respectively. In the former, Jin is saluted by thirteen viceroys painted on the western wall, while he is also conferring titles to officers painted on the southern wall. Such composition of paintings materializes the Confucian ideal of a general, who has now become the lord of the grave.

The principle of structure and direction found in the procession paintings, which characterizes the stone caves of Hwasang, is also one of the major features found in Doekheung-ri. Inscriptions in black ink ascertain that it portrays a procession scene of the lord. However judging from the structure of the procession, which consists of three carriages, it is a procession to the netherworld. Noteworthy is the fact that the procession is directed towards the cave gate. In other words, the procession starts from the servants waiting on and standing by the husband and the wife located in the back room, and moves on to the horses and carriages portrayed along the corridor, all the way to the scene in the fore-room. Such sense of direction which reflects a longing for a good afterlife is also connected with the images of Gyeonu and Jiknyeo and other spiritual figures portrayed on the northern wall of the fore-room, which is facing the two owners of the grave. These represent figures that the owners longed to meet in afterlife who would feed and wait on them. Other images found in the grave include Chilbohaengsado, as well as horses and horsemen.

The wall paintings found in the fore-room ceiling is unique to Deongheung-ri, consisting of 23 images, including, aide from the hunting scene, celestial bodies, Gyeonu and Jiknyeo, 18 monsters, and other spiritual figures. Celestial axis and horses on the northern wall, plus images of Gyeonu and Jiknyeo portrayed on the southern wall all represent heavenly directions, which have been carefully chosen by the artist according to astrological principles. Also, the images of stars, sun, and moon located on the west and the east walls all represent heavenly directions. In those days it was customary to draw celestial bodies on the tomb ceilings. However, those found in

Deokheung-ri adds the concept of direction as well. In other words, the artists who drew Deokheung-ri paintings were aware of the concept of celestial composition and the principle of direction, when he was portraying the heavenly figures found in *Sbanbaijing*. Thus it is safe to presume that the ceiling painting of Deogheung-ri portrays the specific ideas that Goguryeo people held about heaven and earth at the time.

Therefore, one may conclude that the structure and subject matter found at Deokheung-ri represents a hybrid style in terms of origin, arising from various periods and locations, rather than a straightforward adaptation of Chinese cave art. Before transferring its capital in 427 A.D., Goguryeo has constructed nine temples in the Pyeongyang region, aiming to establish a firm basis for increasing its national wealth. One may conclude that the descendents of the Yuju jasa Jin have adopted principles, structural features, topics, and meaning of ancient Chinese tombs of Wei and Jin, but have added Goguryeo's unique astrological concepts, which eventually resulted in the creative combination of cultural influences found in the wall paintings of Deokheung-ri.